

〈耽羅啓錄〉의 吏讀文과 吏讀 解讀

오 창 명*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吏讀와 吏讀文의 解讀
 - 1. 名詞類 吏讀
 - 2. 助詞類 吏讀
 - 3. 副詞類 吏讀
 - 4. 用言類와 語尾類 吏讀
 - 5. 기 타
- III. 마 무 리

I. 들어가는 말

〈耽羅啓錄〉은 응와(凝窩) 李源祚가 제주 목사로 재임할 당시, 전라도 관찰사에게 또는 전라도 관찰사를 통해서 임금에게 보고한 牒呈들을 謄寫하여 남긴 것으로, 당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중요한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다.

이원조(1792, 정조16~1872, 고종8)의 본관은 星山, 初名은 永祚, 호는 毫宇, 凝窩이다. 응와는 18살(1809, 순조9)에 增廣試 乙科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49세 때인 1840년(헌종6) 3월에 강릉부사에 除授되었다가, 이듬해(1841, 헌종7) 1월 제주목사로 除授되어 3월에 부임하였다. 52살 때인 1843년(헌종9) 6월에 체임 되기까지, 약 2년이 넘게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하였다. 훌륭한 儒生들을 뽑아 백성들에게 勸善懲惡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講師

수시로 관찰하여 賑恤을 요청하기도 하고, 해안의 砲臺를 점검하고, 폐단이 많은 舊制를 혁파하기도 하는 등 제주도의 內治에 힘쓰는 한편, <탐라록> 등을 편찬하여, 당시의 생활과 형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耽羅啓錄>은 옹와가 제주목사로 재임중, 제주·정의·대정 세 읍에서 일어나는 농사 상황, 어민들의 漂流·泆沒 상황, 외국배의 漂到 상황, 군사 상황, 관리의 褒貶 상황 등을 전라도 관찰사나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자료는 당시 제주의 농사현황, 군사제도, 어로생활 등의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자료는 退溪學派諸賢集 편찬사업으로 간행된 <옹와전집>(1986, 여강출판사) 전 4권 중 네 번째 권에 <耽羅錄>, <耽羅誌草本>, <耽羅關報錄>과 함께 영인·출판되어 알려졌다. 그후 1989년에 탐라문화총서 4(198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로 다시 영인, 발간되었다.

<耽羅啓錄>은 대부분 당시의 제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牒呈으로 되어 있다. 牒呈은 하급관청의 관리가 상급관청으로 보고하거나 올리는 문서로,¹⁾ 대개 보고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며, 급한 보고(急報)인 馳報, 馳啓, 칭축하여 허락을 얻는 請報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에 의하면, '모든 중앙, 지방의 공문서는 '동등한 기관 이하에는 關을 사용하고, 이상에게는 牒呈을 사용'하는데, '지방관이 왕명을 받은 신하에게,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諸將이 병조에 대해서 牒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부의 문서는 모두 立案을 보존하여 나중에 考證의 증거로 삼도록 하였다.²⁾ 牒呈의 기본 문서 양식은 <경국대전> 禮典에 '牒呈式'이라 하여 제시된 이후, <전율통보> <백헌총요> 등에 나타나고, <이문잡례>와 <유서필지>에 '報狀式'이라 하여 좀더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 牒은 ① 관청의 문서, ② 상급관청에서 받은 공문을 다음 기관에 다시 알리는 것(移牒), ③ 사명입명서, ④ 증명서, ⑤ 상관에게 보내는 공문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관청의 문서'라는 의미로 쓰였다. 牒은 貼, 帖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牒은 관리가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내거나 올린다는 뜻으로 쓰였다.

2) 凡中外文字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 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將於兵曹并用牒呈 // 官府文字並置立案以憑後考 (<경국대전>권3 禮典 用文字式)

여기서는 이두문과 이두의 용례를 풍부하게 보이기 위해서 〈유서필지〉에 실려 있는 ‘報狀式’을 예로 들도록 한다.³⁾

3) 〈유서필지〉의 報狀式에는 이두의 독음이 달려 있는데, 誤讀 또는 誤刻이 여럿 보인다. 여기서는 이두함목의 뒤 괄호 안에 표시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두부분은 밑줄로 표시한다. 해독문은 다음과 같다.

보장식(어떤 사실을 상급기관에 알려 바치는 공문식) 급한 보고는 곧 馳報이고, 침착하여 허락을 얻은 것은 請報라 함.

아무 官에서 상급기관에 아뢰어 보고하는 일. 이번에 접수한 비변사의 事目에 따라, 관찰사의 關文 안에, 이번에(帖의 要旨가 나옴) 무엇무엇이라고 하여 있는 것이다. 본 읍의 西關(황해도·평안남북도의 총칭) 孔道別星의 경기로써, 사신의 행차에 소용되는 물품의 제공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民間에서 雜物을 받아들이고 흘리어 取用하였으니, 後錄하여 지정하고(부담시키고) 여러 곳에 나누어주어 퍼뜨리고, 연달아 비기오되(청탁하오되) 가난한 백성이 겨우 갖추어 내었으나, 자문(관의 인증서)을 겨우 받고 진역(백성들이 부담하는 賦役과 兵役)을 또한 내었는 바, 금년에 비로소 덜고 덜어서 줄었다고 하여도, 덜어 줄인 것이 도리어 더욱 繁重한데다가 약정·이정·색장·도장을 나아가게 하여 와서 독려하고, 件記와 物種을 죄다 바치도록 하고, 담당자를 아울러서 빨리 찾아서 붙잡고, 더욱 悶望하여 지탱하지 못하였는데, 本邑에게 이와 같은 苦役을 쉽게 옹하는 바, 백성들의 애매한 하소연과 여러 가지의 발판을 미리 짐작하여 다시 헤아려서 처리하고 물리어서, 정해진 날짜를 좇아서 관에 내도록 하여서, 일체히 號訴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호소를 덜어서, 본 바로 論議하을 지라도 이러한 때를 당하여 갑자기 책임을 추궁하였다가 백성들을 제대로 保存하지 못한 즉, 邑이 장차 空虛할가 하고 오직 염려되거늘, 금번 行移가 마침 來到하여 각 항목을 받지 못하여 쉽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신속히 납부를 독려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雜役이 생각과는 달리 버티어 감당하기가 어렵건대, 하물며 白骨(조상)의 징포는 가까운 친족에게 책임을 지워 내게 하여, 여러 가지로 재촉하고, 백성이 죽을 힘을 다하여도 한정된 기한에 미처서 上納하지 않은 것으로, 官에 알리어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칭원하는 것이다. 위 항목의 일의 상태를 절절이 널리 알렸으니, 위의 받지 못한 것일랑 골고루 分攄하고 가을을 기다려 물리고 陳省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착한 것을 살펴보고 되돌림이 어떠합니까 하올 지라도, 도로 각별히 살펴 헤아리고 비변사에 등사하여 보고하였으나 啓聞에 이를 지라도 이번만 특별히 變通하올가 바라오며, 우선 거행한 形止를 모두 牒報하는 일이므로 마땅히 牒呈을 올립니다. 잘 헤아리어 시행할 일이라는 첩정임.

年號某月 行某官姓署押具着

報狀式 急報則日馳報 請得則日請報

某官爲稟報事(일) 節(지위) 到付備局事日導良(드되여) 使關內節該帖出要旨之
 意云云是置有亦(이두이시니여) 本邑以西關孔道別星役只(격기) 使行支應專亦
 (전혀) 擔當乙仍于(을지즈루) 民間良中(아히) 雜物捧上(받자) 流伊(흘리) 取用是
 如乎(이다온) 後錄卜定(지정) 別乎(별음) 播張(바장) 絃如(시우여) 擬只(시기) 是
 乎矣(이오되) 貧賤之民粗也(아야라) 備納爲乎乃(호오나) 尺文(즈문) 才受卜役
 (진역) 又出是乎所(이온) 今年始叱(비릇) 除除良(더러라) 減省是如爲良置(이
 다호여두) 減省新反(시로이) 加于(더욱) 緊中是沙餘良(이소남아) 約正里正色掌
 都將枝如(가모려) 來督件記(발기) 物種畢納爲巴只(호도복) 次知并以(아오로) 這
 這(갓갓) 推提尤于(더욱) 閃望至當不得(모질) 是在如中(이견다히) 本邑耳亦(파
 니) 如此苦役易亦(안옥혀) 對答爲臥乎所(호누온바) 衆民呼冤物物白活(갓갓발
 궐) 先可(아덕) 斟酌(짐작) 更良(가식아) 參商退伊(물니) 定日追于(조조) 納官爲
 良納(호야감) 一齊號訴從不喻(은아닌지) 民訴除良(더러) 論以所見是乎良置(이
 오라두) 當此之時戈只(과거리) 侵責爲行如可(호여다가) 民不保存是乎則(이온
 즉) 邑將空虛爲乎乙可(호올가) 唯只(아즉) 爲慮是去乙(이거늘) 今此行移適音(마
 춤) 來到各項未收便亦(스리여) 不納爲乎樣以(호은양으로) 星火督納是乎等乙用
 良(이온들쓰아) 初亦(초혀) 雜役尚難支堪是去等(이거든) 況床(호몰며) 白骨徵包
 隣族侵奪秩秩以(지질로) 推促民竭死力是良置(이라두) 定限及良(밋쳐) 無以上
 納是乎等以(이온들로) 官不報稟是去乎(이거온) 向入(앗드러) 稱冤爲臥乎在亦
 (호누온견이여) 上項事狀節節放報爲去乎(호거온) 同(오히) 未收乙良(을란) 惠伊
 (저즈리) 分揀(분간) 待秋退捧上納陳省(진싱) 到付考還何如爲乎乙喻(호올지) 道
 以(도로) 各別(각별) 參諒瞻報備局是去乃(이거나) 至於啓聞是乎乙喻良置(이올
 지라도) 節從(지위순) 特爲變通爲乎乙去(호올거) 望良乎床(바라오며) 爲先舉行
 形止并只(다모기) 牒報爲臥乎事(호누은일) 是良亦(이아금) 合行牒呈伏請 / 照
 驗施行牒呈者 / 右牒呈 / 兼巡察使 / 年號某月行某官姓署押具着

II. 吏讀와 吏讀文의 解讀

우선 <耽羅啓錄>에 나타나는 이두의 어형, 의미, 기능 등을 밝혀야 하겠다. 이두는 근대국어시기까지 사용되었지만 문자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독법, 어형, 의미,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중세국어의 어형, 의미, 기능, 그리고 근대국어시기의 이두학습서들에 나타나는 독법을 참고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해독은 이두항목에 따라 품사별로 행한다.

1. 名詞類 吏讀

명사류 이두에는 실질명사인 단일명사·대명사·복합명사, 형식명사, 명사류

접사, 수량명사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로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살펴보기로 한다.

1.1) 事(일)

事는 훈독자로 '일(吏大)' 또는 음독자로 '스(吏文)'로 읽히며 '[-하는, -할] 일, 것'이란 뜻으로 쓰인다.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 向事(안일), 向教是事(아이산일), 爲白臥乎事(기슭누은일) 등과 같이 동명사어미 뒤에 쓰인다.

其代例以三邑出身中可堪人極擇備三望牒報于該曹爲白乎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詮次善啓向教是事 / 그것을 대신하는 예는 세 읍 출신 중에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써 아주 정밀하게 골라서 三望을 갖추고 해당 曹에 牒報하였사오며, 그 緣由를 馳啓하옵는 일이므로 사리와 질차에 맞게 善啓하옵실 일. <도광21년 11월6일>

謹啓爲相考事節到付備邊司關據本道觀察使關內節啓下教司啓辭諸道春操稟啓今已齊到矣 / 삼가 아뢰어 相考하는 일. 이번에 접수한, 비변사의 關文에 의거한 본도 관찰사의 關文 안에, 이번에 啓下하신 비변사의 啓辭는 여러 도의 春操(봄철에 행하는 군사조련)에 대한 것으로, 稟啓는 이번에 이미 일제히 到付하였습니다. <도광23년 3월22일>

1.2) 前(전)

前은 음독자로, '전(吏襟)>전'으로 읽히며, '지난 번[에], 전[에]'의 뜻으로 쓰인다. 前矣(전의), 向前(아전) 등에서 쓰인다.

謹啓爲相考事前矣到付禮曹關據本道觀察使關內節啓下教觀察監牒呈內 / 삼가 아뢰어 相考하는 일입니다. 전에 접수한 예조의 關文에 의거한, 본도(전라도) 관찰사의 關文 안에, 이번에 啓下하시어, 관찰감에 올린 첩정 안에 <도광22년 10월3일>

1.3) 節(디위)

節은 훈독자로, '디위(吏大)>지위(古승)'로 읽히며, '이번[에], 때[에], 이 때[에]'의 뜻으로 쓰인다.

謹啓爲相考事節到付本道觀察使關內節祇受有旨內 / 삼가 아뢰어 相考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접수한 본도(전라도) 관찰사의 關文 안에, 이번에 공손히 받은 임금님의 有旨 안에 <도광23년 3월20일>

1.4) 同(오헌)

同은 혼독자로, '오헌(吏禎)'⁴으로 읽히며, '위(의), 위와 같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은'의 뜻으로 쓰인다. 주로 관형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현대국어의 관형사 '동'(同: 동 기관, 동 학년, 동 지역 등)에 대응한다.

同彼人七名供饋段每名每日米二升鷄二脚生魚一尾甘苣一集鹽醬柴由炭等物依例磨鍊上下以示朝家柔遠之德意是白乎麻 / 위의 저 사람들 일곱 명의 供饋는 매 명에게 매일 쌀 두 되, 닭 두 다리(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미역 한 잎, 소금과 장, 팥감과 기름, 석탄 등의 물건을 前例에 따라 마련하여 내주고, 조정에서 먼 곳의 백성을 회유하여 따르게 하는 德意를 보이며 <도광23년 5월16일>

1.5) 右(이피, 임의)

右는 혼독자로, '임, 니피(吏大)>이피/님의(典律)>임의(吏集)⁵로 읽히며, '위[오른쪽]에 적은[말한] 글이나 내용,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同과 같이 관형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右는 주로 바로 위에 말한 내용이나 사람을 가리킨다.

右人段足踢其妻文右脇當下致死辭緣推考前受刑問四百九十四次 / 위 사람은 그 아내 문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서,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 사연을 推考하기 전에 사백 아흔 네 번에 걸쳐 刑具로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던 차에 <도광22년 10월4일>

1.6) 身(몸)

身은 혼독자로, '몸(吏文)'으로 읽히며, '[-의]몸, 자신'의 뜻으로 쓰인다. 주로 '人名+矣(속격)+身(몸)' 또는 '대명사+矣+身'의 형태로 쓰인다.

白等高尚集矣身段以本州中面別刀里民去丁酉秋持涼臺出往嶺南地散給外上推未推 / 아뢰옵는 것은, 고상엽의 몸은 본주 중면 별도리 사람으로, 지난 정유년 가을에 갓양태를 가지고 영남 땅으로 나가서 외상으로 여기저기 주어서, 혹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못 받기도 하였습니다 <도광23년 3월7일>

1.7) 此(이)

此는 혼독자로 '이(吏便)' 또는 음독자로 '츠(吏文)'로 읽히며, 지시대명사

4) 同 오헌 봉 <천자-광 15-16>

5) 右는 前(님)과 같은 뜻으로, 고려시대부터 쓰였다.

'이, 이것, 바로 앞에 말하였거나 알려진 내용'의 뜻으로 쓰인다.

此亦中濟州牧良中一體知委施行次關是置有亦關內辭意奉審施行向事關是白置有亦 / 이에 제주목에 일체를 잘 알려서 시행할 것으로 관문을 내려 있는 것이기에, 관문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고 施行할 일이라는 관문을 내려 있는 것이라 <도광21년 9월10일>

1.8) 矣(의)

矣는 대명사, 조사, 어미 등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음독자로, '의'로 읽히며, '저, 저 자신' 또는 '우리'라는 뜻을 가진 대명사로 쓰인 것을 말한다.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矣身(의몸), 矣等(의들), 矣船(의선), 矣父(의부) 등과 같이 다른 이두자와 결합하여 쓰기도 한다. 대명사 矣는 기원적으로 속격 조사로 보인다.

同月初七日該島傳語官三人使矣等仍乘本船彼船六隻曳矣船次次前進或停或行 / 같은 달 초 7일에 해당 섬의 전어관 세 사람이 우리들로 하여금 本船에 타게 하고 저들 배 여섯 척이 우리 배를 예인하여 차례로 나아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여 <도광22년 5월13일>

1.9) 矣身(의몸)

矣身은 '의몸(이문)'으로 읽히며, '저, 나, 저 자신'의 뜻으로 쓰인다. '저'라는 뜻의 대명사 矣와 '자신, 몸'이란 뜻인 身이 결합한 형태이다.

白等自矣身所居浦口至別防鎮倉底水路不過爲二十里故欲納還上七月初六日載米三包於椽船獨爲搖櫓發向鎮倉之祭 / 아리읍건대, 제가 사는 浦口에서 별방진의 창고에 이르기까지 뱃길이 낮으며 20리밖에 안되므로 환자를 내려고 7월 6일 쌀 세 포를 테우에 싣고서, 혼자 노를 저어 鎮倉으로 떠나려고 하던 차에 <도광22년 11월9일>

1.10) 矣徒等(의내등)

矣徒等은 '의내등(吏文), 의다등(典律), 의내들'로 읽히며, '저희들, 이내들, 우리들'의 뜻으로 쓰인다. 1인칭 대명사 矣와 복수를 뜻하는 접미사 徒(-내)와 等(-들)이 결합한 형태이다. 徒는 형태상 중세국어의 복수를 뜻하는 '-내'에 대응한다.⁶⁾

6) 矣徒等은 문맥상황에 따라 '의내등'으로 읽고, '이내들, 이들'의 뜻으로 쓰이

今此物故罪人朴元益屍身檢驗時矣徒等隨忝看審則仰面口眼俱合兩手散兩脚伸直 / 이번 물고죄인 박원익의 시신을 檢驗할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자세히 살펴 본 즉, 얼굴은 하늘로 향해 있고 입과 눈은 모두 닫혀 있고 양손은 벌려 있고 양다리는 곧게 뻗어 있고 <도광23년 3월30일>

1. 11) 矣等(의등)

矣等은 '의등(吏便), 의들'로 읽히며, '저희들, 우리들'의 뜻으로 쓰인다. 1인칭 대명사 矣와 복수의 等이 결합한 형태이다.

彼等以書問矣等所居地方及漂流事狀是乎所曾聞濟州人之或漂異國也每諱濟州二字是如乙仍于答以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 / 저들은 글로써 우리들의 사는 지방과 표류한 상황을 묻는 바 일찍이 제주 사람이 혹 다른 나라에 표류했을 때 제주라는 두 글자를 피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조선국 전라도 해남 현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광22년 11월9일>

1. 12) 自矣身(저의몸)

自矣身은 '저의몸'으로 읽히며, '저, 저 자신'의 뜻으로 쓰인다. 1인칭 대명사 自와 속격 矣, 명사 身의 결합이다.

白等自矣身所居浦口至別防鐵倉底水路不過爲二十里故欲納還上七月初六日載米三包於 船獨爲搖櫓發向鐵倉之祭 / 아뢰옵건대, 제가 사는 浦口에서 별방진의 창고에 이르기까지 뱃길이 낫으며 20리밖에 안되므로 환자를 내려고 7월 6일 쌀 세 포를 때배에 싣고서, 혼자 노를 저어 鐵倉으로 떠나려고 하던 차 <도광22년 11월9일>

1. 13) 我等(저등)

我等은 '저등, 저들'로 읽히며, '우리들, 저희들'의 뜻으로 쓰인다. 1인칭 대명사 我와 복수의 等이 결합한 형태이다.

諸人之言以爲我等還入濟州無所係戀不如各自散去圖生於陸地云云是如是白

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3인칭 1인칭대명사 矣(이)와 복수의 徒(내), 等(들)로 분석할 수 있다.

本營因推罪人金昌旭姜宗廉等矣矣徒等一爲鄉所一爲倉色莫重國穀私自出庫 / 본營에서는 죄인 김창욱과姜宗廉들을 가두어 推問하였는데, 이내들은 한 번은 鄉所가 되어, 한 번은 倉色이 되어, 莫重한 나라의 양곡을 사사로이 마음대로 倉庫에서 꺼내서 <담라계록>(申丑 5월 20일)

乎所 / 여러 사람이 말로는, 우리들이 제주로 돌아 들어와서 연연해하는 바
가 없어 각자가 육지로 흩어져 가서 삶을 도모함만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바 <도광22년 10월9일>

1. 14) 汝(너)

汝는 혼독자로, '너(吏便)'로 읽히며, 2인칭 대명사 '너'의 뜻으로 쓰인다.

則該縣以義州草料中漂還三人俱載以濟州不可以汝矣一人之言遽然許施是如
/ 곧 해당 현에서 의주의 초료장에 이르기를, 표류하여 돌아가는 세 사람을
모두 실고서 제주로 갈 수 없다는 너의 한 사람의 말에 두려워서 벌벌 떨기
에 요구하는 대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광23년 3월7일>

1. 15) 汝矣身(너의몸)

汝矣身은 '너의몸(吏便)'으로 읽히며, '너의 몸, 너 자신, 너' 등 2인칭 단
수 대명사로 쓰인다. 2인칭 汝와 속격의矣, 명사 身이 결합한 형태이다. 노
비문서의 경우 '汝矣身, 女矣身'은 2인칭이 아니라 1인칭 대명사로 쓰인다(전
자는 주체가 남자인 경우, 후자는 주체가 여자인 경우).

同月同日本州左面魚登里韓彭伊年二十三汝矣身一人獨乘一槎綠何出海綠何
漂流是加噓這間委折母隱直告亦推問教是臥乎在亦 / 같은 달 같은 날 本州 좌
면 어등리 한팽이(23살) 너(너의 몸) 한 사람이 홀로 한 테우를 타고 어떤
연유로 바다에 나가서 어떤 연유로 표류하였는 지 그간의 곡절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라 <도광22년 11월9일>

1. 16) 汝矣等(너의등)

汝矣等은 '너의등, 너의들'로 읽히며,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들'의 뜻으로
쓰인다. 2인칭 汝와 속격의矣, 복수의 등이 결합한 형태이다. 問情記에서는
爾等(너등)도 쓰인다.

貴牧居民九名漂入異國今始生還故給糧資成草料發送原籍官之由舉論於狀聞
中是遺 / 貴 牧에 사는 백성 9명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여 들어갔다가 이제
야 비로소 살아 돌아왔으므로 糧資를 주고 草料狀을 작성하여 原籍官에 發
送하는 연유를 狀聞 중에 舉論하였고 <도광22년 11월9일>

1. 17) 汝等(너등)

汝等은 '너등, 너들'로 읽히며,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들'의 뜻으로 쓰

인다. 2인칭 汝와 복수의 等이 결합한 형태이다.

書問之日同月二十三日也人命只爲汝等三名而已舉網捉魚之路忽見轉仆於浦港而仍爲負來所到地方則乃蘇州府所屬浦云云 / 글로 물은 날은 같은 달 23일로, '살아있는 사람은 단지 너희들 세 명이나', 그리고 이미 그물을 들어 고기를 잡는 도중에 홀연히 浦港에서 배가 엎어짐을 당하여 도착한 지방으로 업혀온 즉, 소주부 소속의 浦였습니다 <도광23년 3월7일>

1. 18) 彼(저)

彼는 '더'저'로 읽히며, 3인칭 대명사 '저'의 뜻으로 쓰인다. 대개 표류했던 사람들이나 관청에서 漂到地方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인다.

同月初七日該島傳語官三人使矣等仍乘本船彼船六隻曳船次次前進或停或行 / 같은 달 초 7일에 해당 섬의 전어관 세 사람이 우리들로 하여금 本船에 타게 하고 저들 배 여섯 척이 우리 배를 예인하여 차례로 나아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여 <도광22년 5월13일>

1. 19) 彼等(저등)

彼等은 '저등, 저들'로 읽히며, 3인칭 복수 대명사 '저들, 저쪽 사람들'의 뜻으로 쓰인다. 3인칭 彼와 복수의 等이 결합한 형태이다.

彼等以書問矣等所居地方及漂流事狀是乎所曾聞濟州人之或漂異國也每諱濟州二字是如乙仍于答以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 / 저들은 글로써 우리들의 사는 지방과 표류한 상황을 묻는 바, 일찍이 제주 사람이 혹시 다른 나라에 표류했을 때 제주라는 두 글자를 피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조선국 전라도 해남현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도광22년 11월9일>

1. 20) 其(저)

其는 훈독자로, '저(吏棟), 그'로 읽히며, 3인칭 대명사 '저, 그'의 뜻으로 쓰인다. 대개 표류했던 사람들이 漂到地方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인다.

其矣招內矣身不過暫時同載別無與諸人相議之事 / 그의 진술서의 안에, 이 몸이 불과 잠시동안 함께 신고서 특별히 여러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의논한 일이 없으며 <도광22년 10월9일>

1. 21) 此等(이등)

此等은 '이등, 이들'로 읽히며, '이들, 이 사람들'의 뜻으로 쓰인다. 3인칭

대명사 此와 복수의 等の 결합이다.

其外生還高卓根一人及价死金近石等四名考諸放船記與帳籍初無此等姓名 / 그 외에 살아 돌아온 고탁근 한 사람과 물에 빠져 죽은 김근석등 네 사람은 여러 放船記와 帳籍(호적)을 살펴보니 처음부터 이들의 성과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광23년 3월7일>

1. 22) 渠等(저등)

渠等은 '그들, 그들/저들'로 읽히며, '그들, 저들'의 뜻으로 쓰이는 3인칭 복수 대명사이다. 3인칭 渠(그)와 복수의 等の 결합이다.

渠等三人生還是如故着實供饋別定船隻限同將校人送亦爲自有條 / 저들 세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므로 착실하게 음식을 주고 따로 배를 정하여 임회한 장교가 人送하라 하셨으며 <도광23년 3월7일>

1. 23) 等(들)

等은 '들'로 읽히며, 복수 접미사 '들'의 뜻으로 쓰인다. 인칭대명사와 의존명사, 명사류 한자 따위의 뒤에 쓰인다.

舉體肉色瘦黃合面舉體六色亦爲瘦黃因病致死的實教味白齊爲等如各人等招辭是置有亦 / "모든 몸의 색깔이 파리한 누런 색이고, 땅에 닿아 있는 모든 몸의 색깔도 또한 파리한 누런 색이어서,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신 뜻을 아뢰니다"라고 한 것들대로 각 사람들의 진술서가 있는 것이다. <도광23년 3월30일>

貴牧居民九名漂入異國今始生還故給糧資成草料發送原籍官之由舉論於狀聞中是遣 / 貴牧에 사는 백성 9명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여 들어갔다가 이제야 비로소 살아 돌아왔으므로 糧資를 주고 草料狀을 작성하여 原籍官에 發送하는 연유를 狀聞 중에 舉論하였고 <도광22년 11월9일>

1. 24) 式(식)

式은 음독자로, '식'으로 읽히며, 현대국어의 명사류 접사 '씩'의 뜻으로 쓰인다. 대개 수량단위명사 뒤에 사용된다.

十一月二十六日到皇城其間陸路約二千二百餘里毛衣一件式題給 / 11월 26일 황성에 도착했는데, 그간의 육로는 약 2천 2백여 리나 되고, 털옷 한 벌을 題給받았습니다. <도광23년 3월7일>

1. 25) 味(맛)

味는 훈독자로 '맛(吏文)' 또는 음독자로 '미(語錄)'로 읽히며, '뜻, 意味, 趣旨'의 뜻으로 쓰인다. 주로 동명사어미 뒤에 나타난다.

同年十月初九日下直十一月十六日到任爲臥乎味牒呈是白置緣由謹具啓聞 / 같은 해 10월 초 9일에 下直하고 11월 16일 到任하는 뜻이라는 牒呈이옴고 연유로 삼가 갖추어 啓聞함. <도광22년 11월 21일>

1. 26) 所(바)

所는 훈독자로, '바(典律), 배(吏文)'로 읽히며, 현대국어 의존명사 '(-하는) 바, 줄, 것'의 뜻으로 쓰인다. 주로 동명사어미 뒤에 나타난다.

今十月朔所封柑橋一一摘取則唐金橋爲十九箇柑子爲十五箇是白乎所馨慶廟薦新唐金橋十六箇柑子十四箇依例封進是白乎則 / 올 10월달에 바칠 감귤을 일일이 따서 본즉 당금귤은 열 아홉 개, 감자는 열 다섯 개이사온 바 조경묘에 새로 올릴 당금귤 열 여섯 개, 감자 열 네 개를 전례에 따라 봉하여서 바치온 즉 <도광21년 10월2일>

1. 27) 叱分(췌)

叱分은 음가자로, '췌(吏大)>뽀'으로 읽히며, 의존명사 '뽀, 만'의 뜻으로 쓰인다. 주로 통합형 '叱分不諭, 叱分除良'의 형태로 사용된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限定을 뜻하는 특수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夫何今月望後凄風冷雨連日頻作尚今不霽毋論早晚各穀頗有傷損分叱除良再播種芽因除草之不得趁時姑無苗長之望是白如乎 / 대저 어떤 일인지 이번 달 보름이 지난 뒤에 처량한 바람과 차가운 비가 여러 날 계속되어서, 도리어 지금 낱씨가 개지 않아 이른 것이든 늦은 것이든 논할 것 없이 각 곡식은 자못 손상을 입었을 뿐더러 다시 뿌린 어린 싹도 김을 매 주지 못하여 진작에 잠시 잘 자랄 가망이 없는 데 <도광21년 6월29일>

1. 28) 次(차)

次는 음독자로, '차(吏文)>차'로 읽히며, 현대국어의 '기회'를 뜻하는 의존명사 '차[에]' 또는 '것'의 뜻으로 쓰인다.

此亦中濟州牧良中一體知委施行次關是置有亦關內辭意奉審施行向事關是白置有亦 / 이에 제주목에 일체를 잘 알려져서 시행할 것으로 관문을 내려 있는

것이라 관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고 施行할 일이라는 관문을 내려 있는 것이라 <도광21년 9월10일>

1. 29) 條(조)

條는 '도'조로 읽히며, '조목(으로), [어떠한]목적·소용(으로)'의 뜻으로 쓰인다. 대개 '이'가 생략되어 쓰인다.

防耗條八百六十四石零段係是已劃下之穀待夏還擇上依此數移劃公用以其餘會錄還簿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詮次善啓向教是事 / 防耗조로 끝백 예순 네 석 남짓은 이와 관계되어 이미 갈라서 나눠준 곡식은 여름의 환반자를 기다려 이 수에 따라 다른 관아에 나눠줘서 공공으로 쓰고, 그 나머지는 모아서 還簿에 기록하고 計料하는 연유를 馳啓하옵는 일하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라 善啓하실 일. <도광22년 3월24일>

1. 30) 喻(디)

喻는 '디'지'로 읽히며, 이는 중세국어 의존명사 '디'에 대응한다. 喻는 의존명사 '드'와 계사 'ㅣ'의 결합이다.

何年何月日以何船緣何事漂流異域今始生還是加隱喻情跡節節可疑這間委折無隱直告亦推問教是臥乎在亦 / 어느 해 어느 달 날에 어떤 배 어떤 일을 연유로 해서 다른 나라에 표류하였다가 이제야 살아 돌아왔는 지 사정과 발자취 한 마디 한 마디가 의심할 만하니 그 사이의 곡절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라 <도광23년 3월7일>

1. 31) 件記(불기)

件記는 '불기(吏文)>불기(儒齊)'로 읽히며, 현대국어의 '발기'의 표기이다. '物品名이나 金額 등을 나열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나 장부 따위'를 뜻한다.

其外雜休紙亦多有之而胡亂無序不過標紙件記等種故就其中擇其中可模出者書冊各一葉文書各一張及人形小畫祈禱神牌等合二十張另爲模本並與卜物成冊船制圖形都封上送于備邊司爲白遺問情別單修啓爲白乎條 / 그 외에 잡휴지 또한 많이 있었으나, 확실하지 않고 차례가 없어서 標紙 文記 등의 종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에 취하여 가려뽑고 본뜬 만한 것은 서책 각 한 점, 문서 각 한 장과 사람얼굴을 그린 조그만 그림, 기도신패 등을 합하여 스무 장을 특별히 본뜨고, 아울러 짐물의 성책과 선제도형을 더불어 모두 비번사에 올려 보냈고 問情한 별단은 정리하여 램을 올렸으며 <도광23년 5월16일>

1. 32) 上項 / 右項(운목)

上項/右項은 '운목(語錄)운목'으로 읽히며, '위에 적은 조목, 위에 말한 항목(內容,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上項의 다른 표기로 右項, 前項 등이 쓰이기도 한다.

上項物故罪人朴元益屍身依例檢驗後官上天字號屍帳良中兩件印出一件粘連上使爲臥乎味牒呈是白置有亦本州殺獄罪人朴元益物故的實是白乎等以緣由謹其啓 / 위에 말한 물고죄인 박원익의 屍身은 예에 따라 檢驗한 뒤, 관에 아뢰어 天字號의 檢屍장부에서 두 건을 인출하고 한 건은 粘連하여 글월을 올리는 뜻이라는 牒모을 올려 두어 있기에, 본 주의 살육죄인인 박원익이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연유를 삼가 갖추어 啓를 올립니다. <도광23년 3월30일>

官鎖門聚點段裏糶來往爲弊不些依近例亦爲停止爲白乎所右項諸條固當覆啓回下後舉行 / 관의 진문의 聚點하는 것은 음식을 싸고 오고 가는 弊端이 적지 않아 가까운 예에 따라 또한 停止하였는 바 운목의 여러 조를 진실로 마땅히 覆啓(회답을 올림)하여 回下한 뒤 거행한다 <도광21년 10월21일>

1. 33) 向前(아전/안전)

向前은 '아전(典律), 안전'으로 읽히며, '앞전, 전(에), 앞(에)'의 뜻으로 쓰인다. '점때, 전에'의 뜻을 가진 向과 '전, 앞'의 뜻을 가진 前이 결합한 복합명사이다.

向前各道各祭香祝幣令該司照例磨鍊下送亦令各其本道精備尊物依禮文設行之意行移何如 / 앞전의 각 道 각 祭의 향, 축문, 비단예물을 해당 司로 하여금 예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도록 하고, 또한 각기 본 도로 하여금 정성 들여 준비하고 예물을 소중하게 여겨 禮文대로 設行할 뜻을 문서로 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광22년 10월3일>

1. 34) 磨鍊(마련)

磨鍊은 '마련'으로 읽히며, '미리 갖추, 마련, 어떤 것을 준비함'의 뜻으로 쓰인다. 이를 한자어로 볼 수도 있으나, 고유어의 한자식 표기로 보고 이두로 다룬다.

向前各道各祭香祝幣令該司照例磨鍊下送亦令各其本道精備尊物依禮文設行之意行移何如 / 지난 번 각 道 각 祭의 향, 축문, 비단예물을 해당 司로 하여금 예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도록 하고, 또한 각기 본 도로 하여

금 정성 들여 준비하고 예물을 소중하게 여겨 禮文대로 設行할 뜻을 문서로 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광22년 10월3일>

1. 35) 緣由(연유)

緣由는 '연유'로 읽히며, '연유, 까닭, 말미암음'의 뜻으로 쓰인다. 문맥해 석상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採屍人居住姓名殺物成冊修上于備邊司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尒詮次
善啓向教是事 / 건저 올린 시체의 거주지와 성명, 殺物을 成冊하고 손질하
여 비변사에 올린 연유와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
라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5월22일>

1. 36) 的實(적실)

的實은 '적실(古今)'이라 읽히며, '확실[함], 정확[함], 틀림없음'의 뜻으로 쓰인다. 같은 뜻으로 '的只, 的是(마기)'로 쓰이기도 한다.

本州殺獄罪人朴元益物故的實是白乎等以緣由謹具啓 / 본 주의 살육죄인인
박원익이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연유를 삼가 갖추어 啓를 올린다.
<도광23년 3월30일>

1. 37) 卜物(짐물)

卜物은 '짐물' 또는 '복물'로 읽히며, '짐작, 짐바리'의 뜻으로 쓰인다. 고
유어 '짐'의 표기인 卜과 物이 결합한 형태이다.

其外雜休紙亦多有之而胡亂無序不過標紙件記等種故就其中擇其中可模出者
書冊各一集文書各一張及人形小畫祈禱神牌等合二十張另爲模本並與卜物成冊
船制圖形都封上送于備邊司爲白遣問情別單修啓爲白乎脉 / 그 외에 잡휴지
또한 많이 있었으나, 확실하지 않고 차례가 없어서 標紙文記 등의 종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에 취하여 가려뽑고 본뜬 만한 것은 서책 각 한 점,
문서 각 한 장과 사람얼굴을 그린 조그만 그림, 기도신패 등을 합하여 스무
장을 특별히 본뜨고, 아울러 짐물의 성책과 선제도형을 더불어 모두 비변사
에 올려 보냈고 問情한 별단은 정리하여 啓를 올렸으며 <도광23년 5월16일>

1. 38) 上下(츠하)

上下는 '츠하(語錄)>차하(儒齊)'로 읽히며,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주
거나 치러주는 일'을 뜻한다.

同彼人七名供饋段每名每日米二升鷄二脚生魚一尾甘筍一葉鹽醬柴由炭等物
依例磨鍊上下以示朝家柔遠之德意是白乎旆 / 위의 저 사람 일곱 명의 供饋는
매 명에게 매일 쌀 두 되, 닭 두 다리(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미역 한
잎, 소금과 장, 팥감과 기름, 석탄 등의 물건을 예에 따라 마련하여 내주
고, 조경에서 먼 곳의 백성을 회유하여 따르게 하는 德意를 보이며 <도광23
년 5월16일>

1. 39) 外上(외즈)

外上은 '외즈'외자(吏祿)⁷⁾로 읽히며, '물건 값을 뒤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
을 매매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⁸⁾을 뜻한다. 현대국
어에서는 '외상'으로 읽고 있다.

白等高尚葉矣身段以本州中面別刀里民去丁酉秋持涼臺出往嶺南地散給外上
推未推 / 아뢰옵는 것은, 고상엽의 몸은 본 주 중면 별도리 사람으로 지난
정유년 가을에 갓양태를 지니고 영남땅으로 나가서 외상으로 여기저기 주어
서 혹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못 받기도 하였습니다 <도광23년 3월7일>

1. 40) 各別(각별)

各別은 '각별(吏集)'로 읽히며, '각별[히, 하계], 특별[히, 하계]'의 뜻으로
쓰인다. 부사적으로 해석한다.

欠縮馬一百六十三匹謹遵事目每三匹代一匹式分排徵出是白遣群頭牧子各別
嚴治以懲後弊爲白乎旆謹具啓聞 / 欠縮馬 백 예순 세 필을 삼가 事目を 준행
하여 매 세 필에 代 한 필 씩을 分排하여 徵出하옵고 群頭(官營牧場)이 우두
머리와 牧子를 각별히 징벌로써 後弊를 엄하게 다스리며 연유를 삼가 갖추
어 啓聞함. <도광22년 12월25일>

1. 41) 召史(조이)

召史는 '조이(吏機)' 또는 '소사(古今)'로 읽히며, '良人之 아내나 과부'⁹⁾를

7) 賒者來 외자 내다 <역해, 하 : 50> / 賒着來 외자 내다 <동해, 하 : 27> / 賒
縣買 외자 <물보, 상고> 上자 還上捧上外上皆日자 <古今釋林>(나려이두)

8) 外上 외자 貸用他人物件也<吏讀便覽>

9) 召史 조이 良民之妻稱召史 <古今釋林40>(羅麗吏讀, 釋名) / 召史 조이 閭巷
女人之稱號 <行用吏文>

召史(조이)는 보통 여자의 姓이나 職位아래에, 良人之 이름(襄召史, 驛女召
史)처럼 쓰이기도 하고, 婢의 이름(婢召史)처럼 쓰이기도 한 것으로 볼 때,
'양민의 아내, 서민의 과부'를 뜻한다는 해석은 수정되어야 한다.

일컫는데, 양반이나 婢의 이름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로 姓 밑에 붙여서 사용된다.

康津縣鄭召史靈巖郡朴召史率孫女兒船主黃雲行等二十六名行商次共乘一船
本月初七日本鎮補放發是如可 / 강진현 정조이, 영암군 박조이가 거느리는
손녀딸, 선주 황운행들 26명이 行商하는 것으로, 한 배에 함께 타서 이번
달 초 7일에 본 鎮의 補에서 放發하였다가 <도광21년 10월10일>

1. 42) 結卜數(먹집슈)

結卜은 훈독자로 '먹집슈' 또는 음독자로 '결복수'로 읽히며, 租稅를 매기기
위한, 논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結과 卜의 결합으로, 結(먹, 목)·卜
(負, 짐)·束(뭇)·把(잡)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즉 세금의 額數 또는 田畝의
面積단위로 쓰인다. 보통 卜數(負數, 짐슈)로 쓰인다.

今壬寅年本島三邑田畝從實踏驗後結卜數及收稅數并以各其官牒呈相考成冊
開錄爲白遺 / 이번 임인년 본도 세 읍의 논밭을 사실대로 조사한 뒤 먹집
수와 수세 수를 아울러서 각기 관의 牒呈을 相考하여 成冊하여 開錄하옵고
<도광22년 12월25일>

1. 43) 還上(환조)

還上은 '환조'환자¹⁰⁾(吏便)'로 읽히며, '각 관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還上(환자)은 還子로도 쓰인
다.

白等自矣身所居浦口至別防鎮倉底水路不過爲二十里故欲納還上七月初六日
載米三包於 船獨爲搖櫓發向鎮倉之祭 / 아뢰옵는 것은, 제가 사는 浦口에서
별방진의 창고에 이르기까지 뱃길이 낫으며 20리밖에 안되므로 환자를 내려
고 7월 6일 쌀 세 포를 때배에 싣고서, 혼자 노를 저어 鎮倉으로 떠나려고
하던 차 <도광22년 11월9일>

1. 44) 還捧上(환받조)

還捧上은 '환받조'환받자'로 읽히며, '환자를 받아들이는 일'을 뜻한다. 還
上和 捧上의 결합이다. 捧上은 '받조(典律), 받자(吏文)>받자(儒齊)'로 읽히며,
'관청이나 개인이 물건을 받아들이는 일'을 뜻한다.

10) 문 갑과 잇는 환자를 받다 말며 = 通組를 必貰免하며<번소 10:14>

防耗條八百六十四石零段係是已劃下之穀待夏還捧上依此數移劃公用以其餘
會錄還簿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 防耗조로 끝백
예순 네 섬 남짓은 이와 관계되어 이미 갈라서 나눠준 곡식은 여름의 환받
자를 기다려 이 수에 따라 다른 관아에 나눠줘서 공공으로 쓰고, 그 나머지
는 모아서 還簿에 기록하고 計料하는 연유를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라 善啓하실 일. <도광22년 3월24일>

1. 45) 次知(츠지)

次知는 음독자로 보고 '츠디(吏文)>츠지(古今)' 또는 훈독자로 보고 '쯔습아
리'로 읽히며, '주관자, 담당자(각 궁방의 일을 맡아 보는 관리)'의 뜻으로 쓰인
다. 동사로 쓰일 때는 '담당하다 / 차지하다(占有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¹¹⁾

老弱之苟充編伍者軍裝之朽鈍不利者各該將領及次知監色等並從輕重棍治後
卽爲代充改備爲白乎旆 / 늙고 약한 사람으로 苟且하게 隊伍를 편성하고 채
운 사람, 군대의 장비가 낡아 둔해지게 해서 이롭지 못하게 한 사람은 각
해당 將領과 담당관리, 監色등을 아울러서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에 따라 곤
장으로 다스린 뒤, 즉시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채우거나 버리고 다시 장만
하였으며 <도광22년 10월21일>

1. 46) 詮次(전츠)

詮次는 '전츠(典律, 古今)>전차'로 읽히며, '사리와 절차에 맞게[따라서]' 또
는 한자어 '所致'에 대응하는 '까닭, 이유, 때문'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대개
詮次의 형태에서 이는 흔히 생략되어 쓰이며,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된다.

秋耕牟麥段置優給種糧另加勸課以爲廣墾之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
尔詮次善啓向教是事 / 가을에 간 麩麥도 양식을 넉넉하게 주고 더욱 힘써
권장하여 널리 개간하는 연유를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므로 사리와 절차
에 맞게 善啓하옵실 일입니다. <도광21년 10월21일>

1. 47) 數量單位名詞

數量을 나타내는 단위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石(섬: 열 말)/斗(말: 열 되)
/升(刀, 되: 열 홉)/合(홉: 열 작)/勺(勺, 사)¹²⁾ 등은 쌀·참깨·장 등을 재는 容

11) 次知가 한자어로 쓰일 때는 주인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 하인을 뜻하기도 한
다.

12) 용량측정의 단위로서 홉(合)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勺은 종래에 한자음대
로 '작'작'으로 읽혀 왔으나, 오히려 훈독자로 '자, 사'사로 읽어야 할 것이

의 길이), 株(나무 따위를 세는 단위), 間(칸: 집 따위의 칸살을 의 수효를 세는 단위), 塚(다: 矢石을 막는 벽인 성가퀴 따위를 세는 단위) 등이 있다.

屍體段漂掛沿邊畢皆拯得是如爲白有所數多人物之一時价沒聞甚驚慘依例以常平廳皮穀各一石恤典題給於拯得屍親等處使之埋葬是白乎旆 / 시체는 물에 떠서 沿邊에 걸쳐지고, 대개는 건져 올렸다고 하였는 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듣고 매우 놀랍고 애처로워 상평청의 결보리 각 한 섬으로써 恤典을 건져 올린 屍親들에게 題辭를 제기어 주고, 그것으로 시체를 묻도록 하였으며 <도광23년 5월22일>

今癸卯式年所封凶咎馬十匹駑駘馬十匹合二十匹三邑各牧場良中各各抄出依例封進而右後脚公字烙印屯名第次禾毛色成册開錄爲白乎旆 / 금년 계묘년 式年에 올린 허물이 있는 말 열 필, 둔한 말 열 필을 합한 스무 필을 세 읍의 각 북장에서 각각 골라서 뽑아내서, 예에 따라 封進하고, 오른쪽 뒷다리에 공자의 낙인을 찍고, 屯名의 차례로 말의 나이와 털의 색깔을 成册하여 開錄하오며 <도광23년 5월12일>

此外雜休紙亦多有之而胡亂無序不過標紙件記等種故就其中擇其中可模出者書冊各一葉文書各一張及人形小畫祈禱神牌等合二十張另爲模本並與卜物成册船制圖形都封上送于備邊司爲白遣問情別單修啓爲白乎旆 / 그 외에 잡휴지 또한 많이 있었으나, 확실하지 않고 차례가 없어서 標紙 文記 등의 종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에 취하여 가려뽑고 본뜬 만한 것은 서책 각 한 점, 문서 각 한 장과 사람얼굴을 그린 조그만 그림, 기도신패 등을 합하여 스무 장을 특별히 본뜨고, 아울러 짐물의 성채와 선제도형을 더불어 모두 비변사에 올려 보냈고 問情한 별단은 정리하여 啓를 올렸으며 <도광23년 5월16일>

同供饋段每名升鷄二脚生魚一尾甘筍一葉鹽醬柴由炭等物依例磨鍊上下以示朝家柔遠之德意是白乎旆 / 위의 저 사람 일곱 명의 供饋는 매 명에게 매일 쌀 두 되, 닭 두 다리(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미역 한 잎, 소금과 장, 맷감과 기름, 석탄 등의 물건을 예에 따라 마련하여 내주고, 조정에서 먼 곳의 백성을 회유하여 따르게 하는 德意를 보이며 <도광23년 5월16일>

上項物故罪人朴元益屍身依例檢驗後官上天字號屍帳良中兩件印出一件粘連上使爲臥乎味牒呈是白置有亦本州殺獄罪人朴元益物故的實是白乎等以緣由謹具啓 / 위에 말한 물고죄인 박원익의 屍身은 예에 따라 檢驗한 뒤, 관에 아뢰어 天字號의 檢屍장부에서 두 개의 文記를 인출하고 한 文記는 粘連하여 글월을 올리는 뜻이라는 牒呈을 올려 두어 있기에, 본 주의 살육죄인인 박원익이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연유를 삼가 갖추어 啓를 올립니다. <도광23년 3월30일>

1. 48) 기 타

정히 고유명사표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징어는 烏賊魚,¹⁵ 저고리는 赤古伊, 갯양태는 涼臺, 사발은 沙鉢, 두루마기는 周衣로 표기하였다. 말 이름의 취음 표기는 驪馬(유매, 유매물-털빛이 붉고 갈기가 검은 말), 古羅馬(고라물, 黃馬-등어리에 검은 빛을 띤 누런 말), 赤多馬(적대물, 적다물-붉은 빛갈을 띤 말), 加羅馬(가라물, 黑馬-털빛이 검은 말) 등이 쓰였다.¹⁶ 지명의 한자 표기에는 盍令(버령이-지금의 금릉리), 魚登里(어등개-지금의 행원리에 있음), 無注里(무주외-지금의 월정리), 晚早峰(느지리오름-지금의 상명리에 있음), 終達里(종다리-지금의 종달리) 등이 있다.

2. 助詞類 吏讀

助詞類 吏讀는 格助詞와 特殊助詞로 나눌 수 있다. 格助詞에는 乙(을), 矣(의), 以(로), 良中(아히), 亦中(여히) 등이 있고, 特殊助詞에는 段(선), 段置(선두), 如(다비) 등이 있다.

2. 1) 乙(을)

乙은 음가자로, '을(吏文)'로 읽힌다. 현대국어의 대격 '을'에 대응한다. 단 독형태는 보이지 않고 '乙用良'의 항목으로 나타나서, '-을 써서, -을 부리어'로 해석한다.

木綿襪子一部次草鞋一部等物着持東頭西足仰臥致死爲有去乙作作官奴宗福
乙用良次次解脱以醴醕法物醴轉洗身對衆檢驗爲乎矣 / 무명 버선 한 켤레, 다
음 짚신 한 켤레들의 물건을 신고서, 머리는 동쪽으로 행하고 발은 서쪽을
향하고, 하늘을 보고 누워서 죽음에 이르렀거늘 검사의 일을 맡은 관의 사
내종 중복을 부리어 차례로 벗기고 醴醕法物로써 몸을 돌리면서 씻겨내고
여러 사람 앞에서 檢驗하오되. <도광23년 3월30일>

한편 '乙仍于'와 같은 항목에서는 '乙'이 현대국어의 '원인'을 나타내는 具

15) 烏賊魚는 까마귀를 즐겨먹는 성질이 있어서 날마다 물위에 떠 있다가 날아가
던 까마귀가 이것을 보고 죽은 줄 알고 쪼으려 할 때에 바로 잡아 감아 가지
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곧 까마귀를
해치는 도적이란 뜻이다. (강현규 : 1988)

16) 말 이름은 원래 몽고어 차용어이다.

格 '-으로'에 대응한다. 그래서 '-으로 말미암아, -으로 인하여'라고 해석된다.

朝官年八十庶年九十老人每於歲末例爲修啓乙仍于本島三邑良中一一查抄是白乎則朝官年八十老人段無乎是白遣 / 朝官(여든 살), 庶(아흔 살), 老人을 매 歲末例에 따라 修啓함으로 말미암아 본도 세 읍에 일일이 조사하여 뽑은 즉 州官(여든 살)과 老人은 設사음고 <도광22년 12월10일>

2.2) 矣¹(의)

矣¹는 '의(吏稜)'로 읽히며, 현대국어 속격 '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其矣(저의), 汝矣身(너의몸) 등에 쓰인다.

其矣招內矣身不過暫時同載別無與諸人相議之事 / 그의 진술서의 안에 '이 몸이 불과 잠시동안 함께 싣고서 특별히 여러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의논한 일이 없으며' <도광22년 10월9일>

2.3) 矣²(의)

矣²는 '이, 의(吏稜)'로 읽히며, 현대국어의 처격 '에'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前矣(전의)' 등에 쓰인다.

前矣到付禮曹關據本道觀察使關內節啓下教觀象監牒呈內 / 전에 접수한 예조의 관문에 의거한 본도 관찰사의 관문 안에, 이번에 啓下하시어, 관상감의 첩정 안에 <도광22년 10월3일>

2.4) 良中(아히)

良中 '아히(吏文)'로 읽히며, 현대국어의 처격 '에, 에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良中の 讀音은 '아기>아히>아인>에>에'의 과정을 밟았다.

今癸卯式年所封凶咎馬十四駕駟馬十匹合二十四匹三邑各牧場良中各各抄出依例封進而右後脚公字烙印屯名第次禾毛色成册開錄爲白乎族 / 올해 계묘년 式년에 올린 허물이 있는 말 열 필, 둔한 말 열 필을 합한 스무 필을 세 읍의 각 목장에서 각각 골라서 뽑아내서, 예에 따라 封進하고, 오른쪽 뒷다리에 공자의 낙인을 찍고, 屯名의 차례로 말의 나이와 털의 색깔을 成册하여 開錄하오며 <도광23년 5월12일>

2.5) 以(로)

以는 '(으)로'로 읽히며, 구격 '으로, 로'의 뜻이다.

啓依允事判下教是置判付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祗受形止依例啓聞宜當向事
關是白乎等乙用良上項本州殺獄罪人朴元益分付推官連加嚴訊期於取服爲白乎
旆 / '啓에 기대어 운허하는 일'이라 判下하셨는데, 判付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고 施行하되, 공손히 받은 形止를 例에 따라 啓聞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이 있사온 것으로써, 위에 말한 본 주 살육죄인인 박원익은
推官에게 分付하여 연속하여 더욱 엄하게 訊問하여 기어이 범죄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도광22년 8월12일>

2. 6) 亦中(여히)

亦中은 '여히(儒齊)'로 읽히며, 현대국어의 처격 '에'의 기능으로 쓰인다.
대개 亦中은 현대국어의 여격 '에, 에게, 에게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데,
가끔 처격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此亦中濟州牧良中一體知委施行次關是置有亦關內辭意奉審施行向事關是白
置有亦 / 이에 제주목에 일체를 잘 알러서 시행할 것으로 관문을 내려 있는
것이라 관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고 施行할 일이라는 관문을 내려 있
는 것이라 <도광21년 9월10일>

2. 7) 段(단)

段은 '썩(吏文)>단(吏便), 썩은(吏大)'으로 읽히며, '는/은, -인 즉은, 것은'
의 뜻으로 쓰였다. 段은 의존명사 '단'과 주제를 의미하는 '-나'이 결합한 것
이다. 대개 段은 공·사문서의 첫머리에 와서, 전체문장의 주제문이 되게 하
는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 문서 안의 한 문장 안에 主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중세국어시기까지도 유정명사에 붙는 矣段과 무정명사에 붙는 叱段의
구분이 있었으나, 근대국어시기의 이두문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거의 없다.

屍體段漂沿邊舉皆拯得是如爲白有所數多人物之一時湔沒聞甚驚慘依例以常
平廳皮教各一石血典題給於拯得屍親等處使之埋葬是白乎旆 / 시체는 물에 떠
서 沿邊에 걸쳐지고, 대개는 건져 올렸다고 하였는 바, 많은 사람들이 일시
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듣고 매우 놀랐고 애처로워 상평청의 걸보리 각 한
섬으로써 血典을, 건져 올린 屍親들에게 題辭를 제기어 주고, 그것으로 시
체를 묻도록 하였으며 <도광23년 5월22일>

2. 8) 段置(단두)

段置는 '썩두(吏大)>단두(吏大)'로 읽히며, 현대국어의 특수조사 '도'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특수조사 段과 置가 결합한 형태이다.

春種各穀段置另加勸課其於及時廣墾之地緣由並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
次善啓向教是事 / 봄에 파종한 각 곡식도 더욱 힘써 권장하여, 기어이 때에
미쳐서 널리 힘써 일하는 연유와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
차에 따라 善啓하옵실 일. <도광 23년 5월13일>

2.9) 如(다비)

如는 훈독자로 '다비' 또는 음독자로 '여'로 읽히며, '같이, 대로'의 뜻으로 쓰인다. 중세국어의 '같이'의 뜻을 가진 특수조사 '다비>다이'의 표기이다. 爲等如, 貌如 등의 표기에 쓰인다.

舉體肉色瘦黃合面舉體六色亦爲瘦黃因病致死的實教味白齊爲等如各人等招
辭是置有亦 / "모든 몸의 색깔이 파리한 누런 색이고, 땅에 닿아 있는 모든
몸의 색깔도 또한 파리한 누런 색이어서,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신 뜻을 아웁니다"라고 한 것들대로 각 사람들의 진술서가 있는 것이
라. <도광23년 3월30일>

3. 副詞類 吏讀

副詞類 吏讀는 并以/並以(아오로), 次次(츠츠로), 次第(츠데로), 爲先(위선), 這這(곤곤), 不得(모달), 追乎(초초) 등이 쓰인다.

3.1) 并以/並以(아오로)

并以/並以는 '아오로(典律), 아오로(吏文)'로 읽히며, '아올러(서), 함께, 모두'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 并/並(아올다)과 부사과생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부사이다.

搃屍人居住姓名穀物成册修上于備邊司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
善啓向教是事 / 건져 올린 시체의 거주지와 성명, 穀物을 成册하고 손질하
여 비변사에 올린 연유와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
라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5월22일>

春種各穀段置另飭勸課期於及時廣墾之地緣由並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
次善啓向教是事 / 봄에 심은 각 곡식도 더욱 특별히 권하여 일을 나누어 시
키고, 기어이 때에 미쳐서 널리 힘써 노력하는 여유를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라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4월3일>

3.2) 次次(츠츠로)

次次는 '츄츄로>차차로'¹⁷⁾로 읽히며, '차차(로), 점점, 점차로'의 뜻으로 쓰인다. 흔히 '以'가 생략되어 쓰인다.

木綿襪子一部次草鞋一部等物着持東頭西足仰臥致死爲有去乙作官奴宗福
乙用良次次解脫以醋醃法物翻轉洗身對衆檢驗爲乎矣 / 무명 버선 한 켤레, 다
음 짚신 한 켤레등의 물건을 신고서, 머리는 동쪽으로 행하고 발은 서쪽을
향하고, 하늘을 보고 누워서 죽음에 이르렀거든 검사의 일을 맡은 관의 사
내종 종복을 써서 차례로 벗기고 醋醃法物로써 몸을 돌리면서 씻겨내고 여
러 사람 앞에서 檢驗하오되. <도광23년 3월30일>

3.3) 次第(츄데로)

次第는 '츄데로>츄레로'¹⁸⁾로 읽히며, '차례로, 점차'의 뜻으로 쓰인다. '以'
는 흔히 생략된다. 한자어로 第次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節屆芒種次第登場是白如乎叅互邑牒面報則濟州稍勝於大靜 / 절기가 망종
에 이르러 차례로 곡식이 잘 익었는데, 읍·면의 謄報를 서로 비교해 본
즉, 제주가 대정보다 조금 나았다. <도광23년 5월13일>

今癸卯式年所封凶咎馬十匹駑駘馬十匹合二十匹三邑各牧場良中各各抄出依
例封進而右後脚公字烙印印屯名第次禾毛色成册開錄爲白乎旆 / 금년 계묘년 式
년에 올린 허물이 있는 말 열 필, 둔한 말 열 필을 합한 스무 필을 세 읍의
각 목장에서 각각 골라서 뽑아내서, 예에 따라 封進하고, 오른쪽 뒷다리에
공자의 낙인을 찍고, 屯名의 차례로 말의 나이와 털의 색깔을 成册하여 開
錄하오며 <도광23년 5월12일>

3.4) 這這(갈갈)

這這는 '갈갈(吏文)>갓갓(儒胥)'으로 읽히며, '급히, 신속히, 재빨리'의 뜻으
로 쓰인다. 物物(갓갓)과는 다른 것이다. <대명률직해>에서 這這는 원문의 就
便에의 대응과 중세국어의 '방금'의 뜻인 '갈'의 존재, 그리고 근대국어 이두
문에서 登時, 星火 등의 위치에서의 쓰임 등을 볼 때 '급히, 신속히, 빨리'의
뜻으로 쓰인 것이 확실하다.

故左右隣鎮良中一邊傳通一邊馳報亦爲白有等以去留形止着意看望這這飛報
事嚴飭題送爲白有果 / 그러므로 좌우의 가까운 진에 한편으로는 전통하고

17) 次 츄레 츄, ㄱ음 츄 <신합, 상:3>

18) 第 츄레 데 <훈몽-초, 상:18> <신합, 상:3> 次 츄레 츄 <신합, 상:3>

한편으로는 馳報하라고 하였는 것으로 가고 머무르는 상태를 뜻을 두고 살펴서 신속히 보고할 일이라고 엄히 계칙하여 題送하였거니와 <도광23년 5월 16일>

3.5) 爲先(위선)

爲先은 '위선(吏集)'으로 읽히며, '우선, 먼저'의 뜻으로 쓰인다.

災實淺深州縣差等臣巡審三邑後追乎登聞計料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是良
亦詮次善啓向教是事 / 재해를 입은 열매의 낮고 깊음은 주와 현이 差 등이
있어, 신이 세 읍을 돌아보며 자세히 살핀 뒤에, 좃아서 登聞하고 計料하는
연유를 우선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라 善啓하실 일 <도광22
년 8월28일>

3.6) 不得(모달)

不得은 '모달(典律)>모질(吏文)'로 읽히며, 부정부사 '못>못'의 뜻이다. 문맥
에 따라 '-하지 못하다'라는 동사적인 뜻으로도 해석된다. 不得은 동사부정에
쓰이고, 不喻는 명사부정에 쓰인다.

藏置於衣袖中掛諸壁上而掛衣之壁先爲延燒不得持來是如云云 / 옷속에 숨
겨 두고 모든 벽 위에 걸었으나 옷을 걸었던 벽이 먼저 계속 타버려 지니고
오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도광22년 10월22일>

去八月朔三旬同推及九月朔三旬同推段因罪人身病不得施行是白齊 / 지난 8
월달 三旬 및 9월달 三旬의 同推(여러 사람이 죄인을 함께 신문함)와 9월
초하루와 서른 날 사이의 同推는 죄인의 身病으로 인하여 施行을 하지 못하
였습니다 <도광22년 10월4일>

3.7) 追乎(조초)

追乎는 '조초(古今), 조추'로 읽히며, '나중에 / 좃아서, (그에) 따라서, 연
이어서'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 追와 부사과생접사 乎의 결합이다. 문맥에 따
라서 동사와 부동사어미로 해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追于, 追後로 쓰이기
도 한다.

災實淺深州縣差等臣巡審三邑後追乎登聞計料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是良
亦詮次善啓向教是事 / 재해를 입은 열매의 낮고 깊음은 주와 현이 差 등이
있어, 신이 세 읍을 돌아보며 자세히 살핀 뒤에, 좃아서 登聞하고 計料하는
연유를 우선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라 善啓하실 일 <도광22
년 8월28일>

明月鐵倉減耗條二十石零私自捧用是白如可追後綻露即令還給是白乎則 / 명
월진 창고의 減耗조는 스무 섬 남짓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받아서 써버렸다
가 나중에 드러나서 즉시 還給하도록 하온 즉 <도광22년 11월27일>

4. 用言類와 語尾類 吏讀

用言類 吏讀는 用言語幹에 따라 나누고, 활용어미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용
언어간 항목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用言類 吏讀는 是(-이-), 爲(*-), 白-
(슌-), 向-(*아-/안-), 敎-(이시-), 敎是-(이시-), 上使-(우에브리-), 用-(쓰-),
仍-(지출-), 無-(없-), 除-(덜-) 등이 쓰인다.

4.1) 是(-이-)

是는 훈독자로, '이'로 읽힌다. 중세국어 계사 '-이-'에 대응한다. 이두의
계사 是는 명사 뒤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동사성의 어휘 뒤에도 붙는다. 근대
국어시기의 이두문에서는 是와 爲의 쓰임에 대한 구분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 爲가 명사 뒤에 붙는 경우는 드물다.

4.1.1) 是加喩 / 是加隱喩(이던디)

是加喩/是加隱喩는 '이던디'이던지(吏語)'로 읽히며, '-이던 지, -인 지 / -
하엿는 지'의 뜻으로 쓰인다. 繫辭 是(-이)와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加(-더-),
동명사어미 隱(-ㄴ), 의존명사 喩(디) 의 결합이다. 어미 加(-더-)는 중세국어
의 과거회상의 선어말어미 '-더-'와 대응한다. 이두에서 미래 또는 예정의 뜻
을 나타내는 거(-거-)와 대립된다. 是加喩와 같이 동명사어미 '隱'이 생략되어
표기되기도 한다.

同月同日本州左面魚登里韓彭伊年二十三汝矣身一人獨乘一椗緣何出海緣何
漂流是加喩這問委折母隱直告亦推問敎是臥乎在亦 / 같은 달 같은 날 本州
좌면 어등리 한팽이(스물 세 살) 너(너의 몸) 한 사람이 홀로 한 뚝배를 타
고 어떤 연유로 바다에 나가서 어떤 연유로 표류하였는 지 그간의 곡절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라 <도광22년 11월9일>

何年何月日以何船緣何事漂流異域今始生還是加隱喩情跡節節可疑這問委折
無隱直告亦推問敎是臥乎在亦 / 어느 해 어느 달 날에 어떤 배 어떤 일을 연
유로 해서 다른 나라에 표류하였다가 이제야 살아 돌아왔는 지 사정과 발자
취 한 마디 한 마디가 의심할 만하니 그 사이의 곡절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
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라 <도광23년 3월7일>

4. 1. 2) 是去乎(이거은)

是去乎는 '이거은(吏機), 이견'으로 읽히며, '-이었으니 / -하였으니'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미래의 조건을 뜻하는 去乎(-견)의 결합이다. 어미 去乎(-견)는 과거의 去(-거-)¹⁹와 어미 乎(-은)로 분석할 수 있다. 乎는 기원적으로 동명사어미이다.

貴牧居民九名漂入異國今始生還故給糧資成草料發送原籍官之由舉論於狀聞
中是遣同標民發送是去乎相考之地亦爲白有麻 / 貴牧에 사는 백성 아홉 명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여 들어갔다가 이제야 비로소 살아 돌아왔으므로 糧資를 주고 草料狀을 작성하여 原籍官에 發送하는 연유를 狀聞 중에 舉論하였고 위의 표류한 백성을 發送하건 相考하라 하였으며 <도광22년 11월9일>

4. 1. 3) 是遣(이교)

是遣는 '이교(典律)'로 읽히며, '-이교, -이었고 / -하고, -하였고'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선행 서술을 '미완결'하고 후행서술을 '연결'하는 어미 遣(-교)의 결합이다.

傳教內辭意奉審施行爲有矣身還布蕩減顧助等節另念舉行是遣 / 傳教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고 시행하였으되, 身還布를 탕감하고, 보살피고 도와 주는 등의 절차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舉行하였고 <도광21년 8월15일>

貴牧居民九名漂入異國今始生還故給糧資成草料發送原籍官之由舉論於狀聞
中是遣 / 貴牧에 사는 백성 아홉 명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여 들어갔다가 이제야 비로소 살아 돌아왔으므로 糧資를 주고 草料狀을 작성하여 原籍官에 發送하는 연유를 狀聞 중에 舉論하였고 <도광22년 11월9일>

4. 1. 4) 是良尔(이아곰)

是良尔는 '이아곰, 이아금(吏大)'으로 읽히며, '-이기에, -이므로, -아서/어서'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良尔(-아곰)의 결합이다.

19) 중세국어에서 '-거-'는 주로 過去(안병희·이광호, 1990), 完了, 假想(안병희·이광호, 1990), 強調(허용, 1975) 등의 의미가 있는 반면, 현대국어의 '-거-'는 예정(심재기, 1981), 비존재·예정·비대상성·미완료·미정·모름(서태룡, 1984)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두의 '-去-'는 미래 또는 가상(-去等, -去乙等 등), 과거의 의미(-去乎) 등으로 쓰인다. 고영근(1987: 119)은 중세 국어의 '-거-'를 시상형태로 보지 않고 확인법 선어말어미로 보았다.

拯屍人居住姓名穀物成册修上于備邊司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
善啓向教是事 / 건져 올린 시체의 거주지와 성명, 穀物을 成册하고 손질하
여 비변사에 올린 연유와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
라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5월22일>

4. 1. 5) 是旆(이며)

是旆는 '이며(吏便)'로 읽히며, '-이며, -며 / -하며, -하였으며'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竝列의 연결어미 旆(-며)의 결합이다.

汝矣等何年何月日緣何事出海漂流異域今始回還是旆當初汝矣等漂流爲八名
而今謂之九名者情跡可疑這問委折毋隱直告亦 / 너희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
느 날에 어떤 일을 연유로 바다에 나갔다가 다른 지역에 표류하였다가 이제
야 비로소 돌아왔으며 애초에 너희들은 아홉 명이 표류하였다고 했으나 지
금 아홉 명이라 하는 것은 情跡이 의심할 만하니 그간의 곡절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어라 <도광22년 11월9일>

4. 1. 6) 是白加尼(이습더니)

是白加尼는 '이습더니'로 읽히며, '-이습더니, -이삼더니, -이더니 / -하습
더니, -하더니'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 과거 知覺의 加(-더-), 상태유지의 연결어미 尼(-니)의 결합이다.

去月二十六日辰時量占風放發是白加尼今月初八日進上陪持李順福陪持軍官
鄭元仲等還現回告內 / 지난 달 26일 진시쯤에 바람을 점쳐 放發하였삼더니,
이번 달 초 팔일 進上陪持인 이순복과 陪持軍官인 정원중들이 돌아와서 내
보인 回告 안에 <도광21년 7월9일>

今年旌寒冬以雪沍之頻春以雨澤之連悶多有踴縮之患是白加尼自三月望後至四
月念間雨暘均適早晚兩麥俱皆成熟 / 올해의 보리는 겨울에 눈이 내리고 땅이
어는 것이 빈번하고, 봄에 비가 연속하여 오지 않아서, 빈번하게 땅이 꺼져
우르러지는 나쁜 상황이 있더니, 삼월 보름 이후부터 사월 이십 일까지 비
와 햇별이 均適하여 이른 보리와 늦은 보리가 모두 다 成熟하였다. <도광23
년 5월13일>

4. 1. 7) 是白遣(이습고)

是白遣는 '이습고'로 읽히며, '-이습고, -이삼고, -이고 / -하습고, -하고'
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미완결의 연
결어미 遣(-고)의 결합이다.

同貢馬船約到外洋風勢不順七隻船旋爲還泊是白遣兩隻船段杳無去處是如乙仍于 / 위의 貢馬하는 배는 대략 外洋에 이르러 바람이 순조롭지 않아, 일곱 척의 배는 방향을 돌려 돌아와 정박하였고, 두 척의 배는 묘연히 간 곳이 없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도광21년 5월26일>

所謂書冊或律或謄句語難解似是渠輩隨身記覽之文是白遣所謂文書或封或軸大小不齊似是渠輩私相往復之書是白乎旆 / 이른 바 서책은 인출하기도 하고 등사하기도 하여 句語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것은 저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열람하는 서책인 것 같고, 이른바 문서는 봉하기도 하고 두루마리로 말기도 하여 크고 작음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이것은 저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往復하는 글인 것 같으며 <도광23년 5월16일>

4. 1. 8) 是白良置(이습아두)

是白良置는 '이습아두(吏祿), 이습라두'로 읽히며, '-이사와도, -이더라도, -이라도 / -하여도, -하더라도'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경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미래 또는 假想的 선어말어미 良(-아/어-), '선택'의 후치사 置(도)의 결합이다.²⁹

見今秋收隔在一月雖無日後他災之更添是白良置來頭民食之艱乏已無可言是白乎所 / 올해의 가을걷이를 보건대, 매 달 차이가 있으나, 비록 며칠 아니 되어 다른 재해가 닥쳐오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날에 백성들이 몹시 가난하게 될 것을 미리 말할 수는 없사온 바 <도광21년 8월25일>

4. 1. 9) 是白如可(이습다가)

是白如可是 '이습다가(吏便)'로 읽히며, '-이옵다가, -이다가 / -하다가, -하옵다가, -하였다가'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경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동작의 완료를 뜻하는 연결어미 如可(-다가)의 결합이다.

今年島農始因早潦之連仍中因嘆風之頻吹初種晚付舉多傷損是白如可幸自七月日氣調順受病各穀漸向回蘇庶幾有成就之望是白加尼 / 올해 島의 농사는 처음에 이른 장마가 계속되고 중간에 더운 바람이 빈번하게 불었기 때문에, 처음 파종한 것과 늦게 부친 것이 거의 다 損傷을 입었다가, 다행히 칠월 달부터 일기가 순조로워, 병의 피해를 입은 각 곡식이 점차 회생하여 거의 목적인 대로 이루어질 가망이 있삽더니 <도광21년 10월21일>

20) 어미 良置(-아/어도)를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연결어미로 다룰 수도 있다(이승재 : 1989).

明月鑛倉減耗糶二十石零私自捧用是白如可追後綻露即令還給是白乎則該萬戶康榘榮及怒還民之來索勸加刑杖其所罪犯 / 명월 鑛倉의 減耗 조로 스무 섬 남짓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받아들여 썼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곧바로 還給하게 한 즉 해당 만호 강이구와 성난 還民을 찾아 내 그 罪犯에 따라 특별히 刑杖을 가한다. <도광22년 11월27일>

4. 1. 10) 是白如乎(이습다운)

是白如乎는 '이습다운(典律)'으로 읽히며, '-이습던, -이였사운데, -이였사오니 / -하습던, -하였사오니, -하였사운데'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과거시상 선어말어미 如(-더-), 연결어미 乎(-온)의 결합이다. 어미 如乎의 乎가 동명사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맥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節屈芒種次第登場是白如乎參互邑牒面報則濟州稍勝於大靜 / 절기가 망종에 이르러 차례로 곡식이 잘 익었사운데, 읍·면의 諜報를 서로 비교해 본 즉, 제주가 대정보다 조금 낮고. <도광23년 5월13일>

兩隻船段杳無去處是如乙仍于別定將吏急發輕舸使之偵探於前洋各處是白如乎同月二十五日巳時量偵探將校文應煥色吏韓光埴等回告內 / 두 척의 배는 묘연히 간 곳이 없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따로 將吏를 정하여 작고 가벼운 배로 급하게 출발하여, 그로 하여금 앞바다의 각처를 정탐하였사운데, 같은 달 25일 사시쯤에 정탐 장교인 문응환, 색리 한광식들의 回告 안에 <도광21년 5월26일>

4. 1. 11) 是白有亦(이습이신이여)

是白有亦是 '이습이신이여(吏大)'로 읽히며, '-이였는 것이라, -이였사은 것이라 / -하였사은 것이라, -하였는 것이라'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과거의 선어말어미 有(-잇-/이시-), 종결어미 亦(-이여)의 결합이다. 有 뒤에 동명사어미가 생략되어, 해석할 때 보충해야 한다.

節啓下教因本道濟州牧殺獄罪人朴元益獄事曹審理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 이번 啓下하신 것으로 인하여, 본도(전라도) 제주목 살육죄인인 박원익의 獄事에 대한 형조의 審理 啓目을 粘連하여 啓下하였는 것이라 <도광22년 8월12일>

慶基殿全州端午祭初五日行事據曹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各道各祭香祝

幣令該司照例磨鍊下送 / 慶基殿에서 행할 전주 단오제는 초 5일에 행할 일을 근거로 하여, 예조의 曆目を 粘連하여 牒呈하였는 것이라, 지난 번 각 도 각 祭의 香祝幣는 해당 司로 하여금 전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도광22년 3월3일>

4. 1. 12) 是白在(이습견)

是白在는 '이습견'으로 읽히며, '-이온, -이사온, -인 / -한'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과거 사실의 지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겨-'와 동명사어미(-ㄴ)의 통합형인 在의 결합이다.

麟次沿邊是白在遮歸續助防將李春烈馳報內同兩隻船因風西向其往如矢俄頃之間杳無形影是如爲白有等以 / 비늘처럼 沿邊에 정연히 늘어선 차귀진의 조방장 이춘열의 馳報 안에, 위의 두 척의 배는 바람으로 인하여 서쪽을 향하여 화살같이 사라져 가버려, 눈 깜짝할 사이에 表연히 形影이 없어졌다고 하였사온 것으로 <도광21년 윤3월13일>

城隍發告祭臨祭日期三日是白在十二日行 / 성황발고제는 여제일의 기한보다 3일 앞선 12일에 行한다 <도광22일 10월3일>

4. 1. 13) 是白在果(이습견과)

是白在果는 '이습견과(吏標)'로 읽히며, '-이삼거니와, -이움거니와'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과거 사실의 지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겨-'와 동명사 어미(-ㄴ)의 결합형 在, 竝列의 연결어미 果(-와)의 결합이다.²¹⁾ 在果는 현대국어의 '-거니와'에 대응되는 표기이다.

本島三邑春種各穀另飭勸課之由及雨澤枯旱耕播枯未趁期之狀前已附陳於麥農狀聞中是白在果 / 본도 세 읍의 봄에 뿌린 각 곡식을 더욱 신척하여 권장하고 독려하는 연유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인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기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은 전에 이미 보리농사에 대한 狀聞중에 덧붙여 아뢰었거니와 <도광22년 5월20일>

本島三邑春種各穀另飭勸課之由前已附陳於麥農狀聞中是白在果此土農作異於內陸全尚粟稷豆太 / 본도 세 읍에서 봄에 뿌린 각종 곡식을 특별히 신척하여 권장하여 힘쓰는 연유는 전에 이미 보리 농사에 대한 狀聞 중에 덧붙였거니와 다만 이 땅의 농사는 內陸과는 달리 오로지 조, 기장, 콩을 숭상한다. <도광21년 6월29일>

21) 어미 果는 본래 명사구 접속의 '-와'다.

4. 1. 14) 是白在如中(이습견다히)

是白在如中은 '이습견다히'로 읽히며, '-이었사온데, -이습견데'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이)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과거 사실의 지속을 나타내는 在(-겨-)와 동명사어미(-ㄴ), 의존명사 如(ㄷ), 처격 中(에)의 결합이다. 在如中은 현대국어의 '-견데'에 대응한다.²²⁾

故山峽畚畚之田常期立夏之後沿海斥鹵之地每限初庚之前是白在如中至於今年其所耕播之節次第農畢 / 그러므로 산골짜기를 개간한 땅은 항상立夏이후를 기약하고, 沿海의 소금기가 많은 땅은 매년 初庚이전을 기한으로 하였사온데, 올해는 같고 과종하는 절기에 이르러서 차례로 겨우 끝마쳤고 <도광 21년 6월29일>

生存三名饋給食物泔死三十名屍身極力拯得之意另飭題送是白在如中同月初九日該鎮將馳報內 / 살아 있는 세 명에게 먹을 것을 供饋하여 주고 물에 빠져 죽은 서른 명의 시신은 전력으로 건져 올릴 뜻을 더욱 계획하여 題送하였사온데 같은 달 초 9일에 해당 진장의 馳報 안에 <도광22년 9월17일>

4. 1. 15) 是白齊(이습제)

是白齊는 '이습제(吏語), 이습제(儒齊)'로 읽히며, '-입니다, -이습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가벼운 명령이나 지시의 의미를 뜻하는 종결어미 齊(-제)의 결합이다. 齊는 願望의 의미로도 쓰인다.

去八月朔三旬同推及九月朔三旬同推段因罪人身病不得施行是白齊 / 지난 8월달 三旬의 同推(여러 사람이 죄인을 함께 신문함)와 9월달 三旬의 同推는 죄인의 身病으로 인하여 施行하지 못하게 한다 <도광22년 10월4일>

去十月朔三旬同推段主推官濟州判官金最善同推官旌義縣監愼尚欽依例舉行是白齊 / 지난 10월달 三旬의 同推는 주추관 제주판관 김최선, 동추관 정의현감 신상흠이 전례에 따라 舉行한다 <도광22년 1월6일>

4. 1. 16) 是白置(이습두)

是白置는 '이습두(吏機)'로 읽히며, '-하여 두었기에, -이습기에'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연결어미 置의 결합이다. 置는 기원적으로 동사어간 '두-'의 표기인데 문법화한 것이며, 과거의 뜻을 가진 선

22) 과거 사실의 지속을 나타내는 在는 의미와 통합구조상 去와의 차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말어미의 기능을 담당한다.

今壬寅年二月初四日到防是如牒呈是白置是良尔謹具啓聞 / 올 임인년 2월 초4일에 防營에 도착하였다는 牒呈을 올려 둔 것이기에 삼가 갖추어 아람. <도광22년 2월7일>

同月二十五日下直三月二十四日到任爲臥乎味牒呈是白置緣由謹具啓聞 / 같은 날 25일에 下直하고 3월 24일에 到任(도착하여 방에 임함)하는 뜻이라는 牒呈을 하여 두고 그 연유를 삼가 갖추어 啓聞합니다 <도광22년 3월27일>

4. 1. 17) 是白置是良尔(이솨두이아금)

是白置是良尔는 '이솨두이아금(곰)'으로 읽히며, '-이웁기에, -이웁다'고 하였으므로 / -하여 두었기에, -하였는 것이기에'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과거 사실의 확인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置, 계사 是,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良尔의 결합이다. 여기서 置는 단순히 연결어미로 처리한다거나 동사어간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今壬寅年二月初四日到防是如牒呈是白置是良尔謹具啓聞 / 이번 임인년 2월 초 4일 방영에 도착하였다는 牒呈이 있기에 삼가 갖추어 啓聞합니다 <도광22년 2월7일>

4. 1. 18) 是白置有亦(이솨두이신이여)

是白置有亦是 '이솨두이신이여(儒胥)'로 읽히며, '[-을] 하여 두었는 것이'라'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선어말어미의 置有,²³ 동명사어미(-ㄴ), 종결어미 亦의 결합이다.

价死人中安義私商二名段文移該道該營以爲舉行之地爲旡形止隨即馳聞宜當向事關是白置有亦 /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중에 安義의 私商 두 명은 해당 道 해당 縣에 공문을 보내어 舉行하였으며, 旡形止를 쫓아서 즉시 馳聞하는

23) 어미 置有를 중세국어의 '뒷-'에 대응하는 복합동사어간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이승재, 1989), -置是-, -置爲- 등의 처리와 함께 좀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是白置有亦, 是置有亦과 是白有亦의 置有와 有, 敎是置, 是白置是良尔의 置 등과를 고려할 때 복합동사어간, 또는 동사어간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과거의 선어말어미로 처리한다.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을 내려 있사온 것이라 <도광21년 8월25일>

上項物故罪人朴元益屍身依例檢驗後官上天字號屍帳良中兩件印出一件粘連上使爲臥乎味牒呈是白置有亦本州殺獄罪人朴元益物故的實是白乎等以緣由謹具啓 / 위에 말한 물고죄인 박원익의 屍身은 예에 따라 檢驗한 뒤, 관에 아뢰어 天字號의 檢屍장부에서 두 건을 인출하고 한 건은 粘連하여 글월을 올리는 뜻의 牒呈을 올려 있사온 것이기에, 본 주의 살육죄인인 박원익이 죽은 것이 확실한 것으로, 그 연유를 삼가 갖추어 啓를 올립니다. <도광23년 3월30일>

4. 1. 19) 是白乎乃(이슌오나)

是白乎乃是 '이슌오나(吏便)'로 읽히며, '-이사오나, -이오나, -이었으나'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白, 양보의 연결어미 乎乃(-오나)의 결합이다. 어미 乎乃是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乎와 연결어미 乃로 더 분석될 것이다.

今月望後霖雨長垂倭風連吹近峽沮洳之田穉芽弱莖闕矮不茂間多萎黃是白乎乃弟今節序雜暮之春也 / 이번 달 보름이 지난 뒤에 장마가 오래 계속되고 서남풍이 계속 불어서, 가까운 골짜기와 낮은 습기가 많은 땅의 어린 싹의 약한 줄기가 용렬하고 키가 작아 자라지 않고 사리가 벌어지고 잎이 황백색으로 되었사오나 다만 지금 계절의 변하는 순서가 늦봄에 이르렀습니다. <도광21년 윤3월21일>

大橋十六箇小橋一百二十箇隨所結封進是白乎乃莫重薦新與進上俱不得如例封進誠萬萬惶恐待罪 / 큰굴 열 여섯 개, 작은 굴 백 스무 개를 맺은 바에 따라 封進하였으나 막중한 천신과 진상을 例와 같이 갖추지 못하여 封進한 것이 진실로 매우 황망하여 죄를 기다립니다. <도광21년 10월26일>

4. 1. 20) 是白乎等乙用良(이슌은돌썌아)

是白乎等乙用良은 '이슌은돌썌아'로 읽히며, '-이사온 것(바, 줄)을 써서, -이사온 것을 써서'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等(은), 대격 乙, 동사어간 用(써-), 부동사형어미 良(아/어)의 결합이다. 乙用良은 현대국어의 '-으로써'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로 다루기도 한다. 의미는 '-때문에, 까닭으로' 정도이다.

啓依允事判下教是置判付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祗受形止依例啓聞宜當向事關是白乎等乙用上項本州殺獄罪人朴元益分付推官連加嚴訊期於取服爲白乎旻 / '啓에 기대어 윤택하는 일'이라 判下하셨는데, 判付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고 施行하되, 공손히 받은 形止를 例에 따라 啓聞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이사온 것을 써서, 위에 말한 본 주 살육죄인인 박원익은 推官에게 分付하여 연속하여 더욱 임하게 訊問하여 기어이 범죄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도광22년 8월12일>

4. 1. 21) 是白乎等以(이습은도로)

是白乎等以는 '이습은도로, 이습은들로'로 읽히며, '-이사온 것(바, 줄)으로, -이사온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동명사어미 乎(-니), 의존명사 等(-의), 조격 以(-으로)의 결합이다. 이때의 以는 乙用良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右水營襄召史段旋自本道監營文移該道發關該營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 우수영의 배조이는 즉시 본도 감영에서 해당 道에 공문을 내고 해당 감영으로 공문을 보냈사온 것으로, 그 연유를 馳啓하옵는 일 <도광21년 8월 25일>

本州殺獄罪人朴元益物故的實是白乎等以緣由謹具啓 / 본 주의 살육죄인인 박원익이 죽은 것이 확실하온 것으로 말미암아 삼가 갖추어 啓를 올립니다. <도광23년 3월30일>

4. 1. 22) 是白乎拯(이습오며)

是白乎拯는 '이습오며(吏大)'로 읽히며, '-이사온 것이며 / -하사온 것이며'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乎, 竝列의 연결어미 拯(-며)의 결합이다.

屍體段漂掛沿邊畢皆拯得是如爲白有所數多人物之一時泔沒聞甚驚慘依例以常平廳皮穀各一石恤典題給於拯得屍親等處使之埋葬是白乎拯 / 시체는 물에 떠서 沿邊에 걸쳐지고, 대개는 건져 올렸다고 하였는 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듣고 매우 놀랍고 애처로워 상평청의 걸보리 각 한 섬으로써 恤典을 건져 올린 屍親들에게 題辭를 제기어 주고, 그것으로 시체를 묻도록 하였사오며 <도광23년 5월22일>

4. 1. 23) 是白乎所(이습은바)

是白乎所는 '이습은바(典律)'는 '-이사온 바, -이온 바 / -하사온 바'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所(바)의 결합이다.

其中橙子橋初不結實是白乎所以此所結之數較諸封進定例則來頭進獻之如例排比實無其路 / 그 가운데에 등자곶이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았사온바, 이 맺은 바의 수로써 여러 가지 封進할 定例를 비교한 즉 다가올 進獻은 전례와 같이 비례에 따라 나눌 길이 실로 없습니다 <도광21년 8월26일>

今年應點馬一千三百五十三匹內點烙時不足馬爲一百六十三匹莫重國畜之如是多縮誠極悚惶是白乎所 / 올해의 應點馬 천 삼백 쉰 세 필 안에 點烙할 때에 부족한 말이 백 예순 세 필이 되어, 막중한 나라의 가축이 이와 같이 많이 줄어들어서 진실로 지히 황송하온 바 <도광22년 12월25일>

4. 1. 24) 是白乎矣(이습오티)

是白乎矣는 '이습오티, 이습오되(吏語)'로 읽히며, '-이사오되, -이오되 / -하사오되, -하오되'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연결어미 乎矣(-오티)의 표기이다.²⁴⁾

今九月令進上柚子箇箇擇封是白乎矣既經五六月間兩次大風之後如干所干所結之類體不滋不大多瘕痕 / 올해 9월순에 진상할 유자를 낱알이 擇封하였사오되, 이미 지난 오뉴월 두 번에 걸친 태풍이 지나간 뒤에 열마간 피해를 입은 바, 맺은 알맹이가 물도 오르지 않고 크지도 않고, 반흔이 많습니다 <도광21년 9월15일>

今壬寅年本島儒生陞補初試考官例當備三員舉行是白乎矣…… 試取後詩賦優等試券贈書上于奎章閣爲白乎矣 / 금년 임인년의 본도 유생의 陞補 初試는 官例를 살펴서 마땅히 세 사람을 갖추어 舉行하오되… 시험을 친 뒤 詩賦가 우수한 시험지는 贈書하여 규장각에 올려 보냈으며 <도광22년 10월18일>

4. 1. 25) 是白乎則(이습은즉)

是白乎則은 '이습은즉'으로 읽히며, '-이사은즉, -이은즉 / -하사은즉, -하은즉'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연결어미 乎則(-은즉)의 결합이다.²⁵⁾

朝官年八十士庶年九十老人每於歲末例爲修啓乙仍于本島三邑良中一一查抄是白乎則朝官年八十老人段無乎是白遣 / 朝官(여든 살), 士庶(아흔 살), 老人을 매 歲末例에 따라 修啓함으로 말미암아 본도 세 읍에 일일이 조사하여

24) 어미 乎矣는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乎와 양보를 나타는 어미 '-티'로 분석할 수 있다.

25) 어미 乎則은 동명사어미 乎와 의존명사 則으로 분석될 수 있다.

뽕은 즉 조관(여든 살)과 老人은 없는 것이옵고 <도광22년 12월10일>

又提致該縣座首由吏與通引吸唱等一一嚴查究問是白乎則座首金商楨由吏姜允範所告內 / 또한 해당 현의 좌수와 유리, 그리고 농민, 흙창들을 붙잡아다가 일일이 자세하게 조사하여 究問하온 즉 좌수 김상준, 유리 강운범의 아뢰는 것에 <도광22년 10월20일>

4. 1. 26) 是如故(이다고로)

是如故는 '이다고로'로 읽히며, '-이라고 하므로, -이므로 / -하였다고 하므로'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인용법어미 如(-라), 접속부사 故의 결합이다.

益令煙臺別將尹宗連等一時進告內當日未時量未辨船一隻自西大洋忽然現形是如故左右隣鎮良中一邊傳統一邊馳報亦爲白有等以 / 버랭이(益令) 연대의 별장 윤종련등이 일시에 아뢰는 내용에 '당일 미시쯤에 구별할 수 없는 배 한 척이 서쪽의 대양으로부터 형체를 나타냈습니다'고 하므로 좌우측의 가까운 진에 한편으론 전통하고 한편으론 馳報하라고 하였사온 것으로 <도광23년 5월16일>

4. 1. 27) 是如可(이다가)

是如可는 '이다가'로 읽히며, '-이다가 / -하다가'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과거시상의 선어말어미 如, 연결어미 可(-가)의 결합이다.

本月初七日日本鎮浦放發是如可伊日薄暮猝遇東南大風仍爲漂流是如爲白有所 / 이번 달 초 칠일에 본 鎮의 포구에서 배를 출발하였다가 그날 해질녘에 갑자기 동남쪽에서 부는 큰 바람을 만나서, 표류하였다고 하였사온 바 <도광21년 10월10일>

殺獄罪人朴元益自去月念間得胸腹疾日漸苦痛是如可今日申時量仍爲物故是如爲有等以取考獄案則 / 살육죄인 박원익이 지난 달 스무 날께 가슴과 배에 병이 들어 날로 점점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이번 달 신시쯤에 인하여 죽었다고 하였는 것이기에 옥안을 취하여 고찰한 즉 <도광23년 3월30일>

4. 1. 28) 是如乎(이다온)

是如乎는 '이다온(吏禿)'으로 읽히며, '-이더니, -이었으니 / -하였다가, -하였는데, 하였으니'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과거 지각의 선어말어미 如(-더-), 연결어미 乎(-니)의 결합이다. 문맥상황에 따라 是如乎는 '-이던, -하던'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蔚山人朴哥等二十名先留師中矣邈近萬里傷感一般供饋衣服等節回還事狀入來日字與梁明得等所供果無差爽是如乎相考處之教味白齋招辭是白置有亦 / 울산 사람 박가 등 스무 명이 먼저 師에 머무르던 중이었는데, 萬里에서 우연히 만나서 슬펐으며, 일반의 衣服들을 供饋한 절차, 이번의 回還한 일의 사정, 들어온 날짜와 양명득들이 올린 진술서가 크게 차이가 없었으니 相考하여 처리하실 뜻을 아뢴다는 招辭이옵니다. <도광22년 12월9일>

十月二十九日還送梨津是如乎十一月初六日駕海當日暮穩泊於本州朝天浦是如白乎絲 / 10월 29일에 梨津으로 되돌려 보냈더니, 11월 초 6일에 바다를 타서 당일 저녁에 본 주의 조천포에 편안히 정박하였다고 하사오며 <도광22년 11월9일>

4. 1. 29) 是在(이건)

是在는 '이건(吏便)'으로 읽히며, '-인, -인 것 / -한'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과거 사실 지속의 선어말어미 在(-겨-), 동명사어미(-니)의 결합이다.

萬戶率放護軍馳往于彼船近境是在本鎮所管盍令浦 / 만호가 방호군을 거느리고 재빨리 저들배에 달려가니, 우리 지경인 본 진이 관리하는 배령포였습니다 <도광23년 5월16일>

4. 1. 30) 是在如中(이건다히)

是在如中은 '이건다히(典律)'로 읽히며, '-인데, -인 것인데 / -한데, -하였는데, -한 것인데'의 뜻이다. 계사 '-是-/이'와 과거 사실 지속의 선어말어미 在(-겨-), 동명사어미(-니), 의존명사 如(도), 처격 中(-에)의 결합이다.

同二隻船搜探各處是在如中沙工安成得船段無事止泊於珍島郡鳥浦是白遣 / 위의 두 척의 배를 각처에 찾아 탐문한 것인데, 사공 안성득의 배는 무사히 진도군 鳥浦에 머물러 정박하였삼고 <도광21년 5월26일>

4. 1. 30) 是齊(이제)

是齊는 '이제(吏語)'로 읽히며, '-이다, -입니다 / -있다, -있습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종결어미 齊의 결합이다. 여기서 齊는 단정의 뜻을 가진 종결어미로 쓰였다.

傳教教是置傳教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舉行形止依例啓聞宜當向事關是齊 / 傳教하였는데, 傳教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고 施行하오되 거행할 形止는 예에 따라 啓聞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이다 <도광21년 9월10일>

靛色不變實因段因病致死的實是齊 / 은비녀의 색깔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의 원인은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 <도광23년 3월30일>

4. 1. 31) 是置(이두)

是置는 '이두(吏大)'로 읽히며, '-하여도, -해도'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연결어미 置(-아/어도)의 결합이다. 置는 단순한 연결어미가 아니라,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담당한다.

罪人朴元益去月念間偶得胸腹疾今月二十七日物故的實是置相考慮之教味白齊 / 죄인 박원익은 지난 달 20일쯤에 우연히 가슴과 배에 병을 얻어, 이번 달 이십 칠일에 죽은 것이 확실하여도, 相考하여 처리하실 일이라고 아뢰입니다. <도광23년 3월30일>

4. 1. 32) 是置有亦(이두이신이여)

是置有亦是 '이두이신이여(吏大)'로 읽히며, '-(關文 따위를) 하였는 것이라, -하여 두었는 것이라'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선어말어미의 置有, 동명사어미, 종결어미 亦의 결합이다. 置有를 복합동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舉體肉色瘦黃合面舉體六色亦爲瘦黃因病致死的實教味白齊爲等如各人等招辭是置有亦 / *모든 몸의 색깔이 파리한 누런 색이고, 땅에 달아 있는 모든 몸의 색깔도 또한 파리한 누런 색이어서,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 하신 뜻을 아뢰입니다* 라고 한 것들대로 각 사람들이 진술하였는 것이다. <도광23년 3월30일>

此亦中濟州牧良中一體知委施行次關是置有亦關內辭意奉審施行向事關是白置有亦 / 이에 제주목에 일체를 잘 알려져서 施行하는 차로 關文을 내렸는 것이라, 관문 안의 辭意를 잘 살펴서 施行할 일이라는 關文을 내렸사온 것이다. <도광21년 9월10일>

4. 1. 33) 爲等如(ㅎ드러)

爲等如是 'ㅎ드러(吏文), ㅎ드러(吏語) / 혼돌다이'로 읽히며, '-한 것들대로, -한 것들과 같이'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ㅎ-)와 동명사어미(-ㄷ), 복수의 접미사 等(등), 특수조사 '같이'의 뜻을 나타내는 如(다비)다이가 결합한 형태이다.²⁶

26) 현재까지의 이두연구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이두함복어 여럿 있다. 爲等如도 그 중에 하나이다. 기존의 연구의 대부분은 동사어간 爲와 복수의 等

舉體肉色瘦黃合面舉體六色亦爲瘦黃因病致死的實敎味白齊爲等如各人等招辭是置有亦 / *모든 몸의 색깔이 파리한 누런 색이고, 땅에 달아 있는 모든 몸의 색깔도 또한 파리한 누런 색이어서,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신 뜻을 아립니다*라고 한 것들대로 각 사람들이 진술하였는 것이다.
<도광23년 3월30일>

4. 1. 34) 是乎跡(이오며)

是乎跡는 '이오며(吏語)'로 읽히며, '-인 것이며, -이며 / -한 것이며, -하며'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乎, 설명의 연결어미 跡(-며)의 결합이다.

觀其火勢不可跳入雖或跳入已燒無餘是乎跡本縣戶籍及其他文簿並在隔房亦爲燒燼其時光景魂夢猶驚此外無他可達之辭是如是白遭 / 그 불의 위세를 보고 달아나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비록 달아나서 들어갔더라도 이미 타버려 남은 것이 없으며, 본 현의 호적과 기타의 문서는 아울러서 떨어진 방에 있었는데, 또한 다 타버렸고, 그때 정신을 잃어 오직 놀라웠습니다. 이외에 달리 아될 말이 없다고 하옵고 <도광22년 10월22일>

4. 1. 35) 是乎所(이온바)

是乎所는 '이온바(吏樣)'으로 읽히며, '-이온 바, -인 바 / -하온 바, -한 바'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所(바)의 결합이다.

舉體肉色瘦黃合面肉色亦爲瘦黃是乎所試用銀釵插入口中與穀道移時取出以皂角水燻洗則釵色不變 / 모든 몸 색깔이 파리한 누런 색이고, 땅에 달아 있는 모든 몸 색깔도 파리한 누런 색인 바 시험용으로 은비녀를 입안과 항문에 꽂고서 시간을 보낸 뒤에 꺼내서 조각수로 닦아 씻은 즉 은비녀의 색이

(들), 如의 결합으로, '뭉틀어, 합해서'의 뜻을 가진 부사류 이두로 다루었다. 그러나 여러 문헌 자료를 살펴 볼 때, 동사어간 'ㅎ-'와 동명사어미(-ㄴ)가 생략표기된 爲(-호), 복수의 접미사 '들'의 표기인 等, 중세국어의 특수조사 '다히'의 표기인 如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김태균(1975)에서 보이고, 한상인(1993)에서도 보인다. 독음도 'ㅎ'과 '들', '호'와 '들', '호'와 '다히'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필자의 (1987, 1993ㄱ·ㄴ, 1994)에서도 爲等如를 부사류 이두로 다루었는데, 여기서 바로 잡는다. 每所易書忠實術乙良兵曹書吏乙良吏曹爲等如依前例定送 / 매 所의 易書(試券을 朱筆로 바꾸어 쓰게 하는 일)는, 중찬위와 충순위일랑 兵曹가, 書吏 일랑 吏曹가 한 것들대로 전례를 따라 정하여 보낸다. <과거사목 18ㄴ>

변하지 않았다. <도광23년 3월30일>

4. 1. 36) 是乎乙遣(이을고)

是乎乙遣는 '이을고'로 읽히며, '-이을고 / -하을고'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乎乙(-을-), 연결어미 遣(-고)의 결합이다. 乎乙은 중세국어 겸양법어미 '-습-'의 변화형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僅爲生活或繼付船材出沒大洋之際幸賴過去船之拯教亦爲卸下該島是乎乙遣私商高明河…… 等八名段未能措手泅沒於險濤之中進上及狀啓並爲沈失是如爲白有置 / 겨우 살아서 혹은 개미같이 船材에 붙어서 큰바다에 떠올랐다 가라 앉았다 할 때 다행히 지나가는 배의 구조에 도움을 받았고, 또한 해당 섬에 내렸사옵고 개인 상인인 고명하… 들 여덟 명은 미처 손쓸 나위도 없이 험한 파도 속에 빠져 죽었고 進上品과 狀啓도 아울러 물에 빠져 잃어버렸다고 하였어도 <도광21년 7월9일>

4. 1. 37) 是乎則(이은즉)

是乎則是 '이은즉(儒胥)'으로 읽히며, '-이은즉, -인즉 / -하은즉, -한즉'의 뜻으로 쓰인다. 계사 是와 조건의 연결어미 乎則(-L즉)의 결합이다. 어미 乎則은 동명사어미 乎와 의존명사 則으로 분석된다.

同月二十五日到靈巖郡是乎則時值空官不爲給料給馬 / 같은 달 25일 영암군에 도착한 즉 그때에 마침 空官이어서 물자도 지급 받지 못하고 말도 지급 받지 못하고 <도광22년 10월9일>

4. 2) 爲-(ᄃᆞ-)

爲는 훈독자로, 'ᄃᆞ' 또는 '삼'으로 읽히며, 동사어간 'ᄃᆞ-'의 뜻으로 쓰인다. 爲는 조동사나 한자어근에 붙는 접미사로 쓰인다.

4. 2. 1) 爲旆(ᄃᆞ며)

爲旆는 'ᄃᆞ며'로 읽히며, '하며'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並列의 연결어미 旆의 결합이다.

泅死人中安義私商二名段文移該道該營以爲舉行之地爲旆形止隨即馳聞宜當向事 /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중에 安義의 私商 두 명은 해당 道 해당 縣에 공문을 보내어 舉行하였으며, 形止를 쫓아서 즉시 馳聞하는 것이 바당한 일 <도광21년 8월25일>

啓下教是置啓下內辭意奉審濟州牧及該邑良中知委施行爲條 / 啓下하셨는데
啓下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펴서 제주목과 해당 읍에 잘 알려져 施行하
며 <도광21년 10월3일>

4. 2. 2) 爲白去乎(ᄃᆞᆫ거은)

爲白去乎는 'ᄃᆞᆫ거은(吏大)'으로 읽히며, '-하옵건, -하면'의 뜻으로 쓰이
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미래 또는 예정의 선어말어미 去,
연결어미 乎의 결합이다.

寧有是事不善舉行之罪有難容貸故差使員大靜縣監高性奎爲先罷黜爲白去乎
其罪狀令牧司稟處爲白乎條 / 정녕 이 일에 있어서 잘 거행하지 못한 죄는
용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사원 대정현감을 우선 파면하옵건, 그 죄
상을 그 관청으로 하여금 낱말이 파해쳐 처리하사오며 <도광21년 5월26일>

自臣營直爲差定使之傳掌屯馬爲白去乎監牧官職帖下送事令該曹稟處爲白只
爲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 신의 監營에서 곧바로 差定하여 그로 하여금
베풀어 屯馬를 장악하게 하옵건, 감목관의 職帖을 내려보내는 일이므로 해
당 曹로 하여금 處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사리와 절차를 밝아서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1월3일>

新備與修補數爻開錄條陳爲白去乎褒嘉之典令該曹考例稟處爲白只爲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 새로 갖추고 보수한 數爻는 왼쪽에 列記하여 조목별로
아뢰옵건, 포상을 내리는 은전은 해당 曹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서 품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리와 절차를 밝아 善啓하옵실 일 <도광21년 9월
12일>

4. 2. 3) 爲白遣(ᄃᆞᆫ고)

爲白遣는 'ᄃᆞᆫ고(吏大)'로 읽히며, '-하옵고, -하고'의 뜻으로 쓰인다. 동
사어간 爲와 겸양의 어미 白, 연결어미 遣의 결합이다.

今癸卯年正月初三日政文奉安爲有如可待其祭日依例設行後自本牧直爲啓聞
宜當向事關是白乎等以同本州三邑祭享各於其日依禮文設行爲白遣 / 이번 계
묘년 정월 초3일 승정원에 문서를 奉安하였다가 그 祭日을 기다려 예에 따
라 設行한 뒤 本 牧으로부터 곧바로 啓聞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인 것으
로 위의 本 州 세 읍의 祭享은 각기 그 날에 禮文에 따라 設行하옵고 <도광
23년 3월7일>

4. 2. 4) 爲白臥乎事(ᄃᆞᆫ누은일)

爲白臥乎事는 'ㄱ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로 읽히며, '-하옵는 일, -하는 일'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어미 白, 현재의 선어말어미 臥(-ㄴ-), 동명사어미 乎, 명사 事(일)의 결합이다. 臥乎는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논'과 같은 기능을 한다.

拯屍人居住姓名穀物成册修上于備邊司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敎是事 / 건져 올린 시체의 거주지와 성명, 穀物을 成册하고 손질하여 비변사에 올린 연유와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라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5월22일>

4. 2. 5) 爲白有加尼(ㄱ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爲白有加尼는 'ㄱ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로 읽히며, '-하였삽더니, -하였더니'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어미 白, 과거시제의 어미 有, 과거지각의 선어말어미 加(-ㄴ-), 연결어미 尼(-ㄴ-)의 결합이다.

卽爲出送詳探問情星火飛報事另加申飭爲白有加尼同日卯時成貼巳時到付假中軍馳報內 / 즉시 出送하여 자세히 살피고 問情하여 곧바로 보고할 일을 특별히 申飭하였삽더니 같은 날 묘시에 貼을 작성하고 사시에 도착한 가중군의 馳報 안에 <도광23년 5월16일>

4. 2. 6) 爲白有等以(ㄱ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爲白有等以는 'ㄱ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로 읽히며, '-하였삽는 것으로, -하였는 것으로, -하였는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白, 과거의 有(-잇-/이시-), 동명사어미(-ㄴ-), 의존명사 等(ㄷ), 구격 以의 결합이다. 等以는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本州入格舉子爲八十二人 … 旌義縣入格舉子爲四人合九十九人抄報爲白有等以 / 본 주에서 합격한 사람은 여든 두사람이고 … 정의현에서 합격한 사람은 네 사람으로, 모두 아흔 아홉 사람을 뽑아서 보고하였는 것으로 <도광 21년 10월16일>

柳擘箭一巡五矢騎竊一巡五矢合十矢得中者及 … 試取修報之意發關知委爲白有如乎本州入格舉子爲七十六人 … 合九十二人抄報爲白有等以 / 유업전 一巡에 다섯 발, 騎竊 一巡에 다섯 발을 합해 열 발을 적중한 사람과 … 시험을 치고 보고하라고 關을 내어 알렸는데, 본 주의 入格者 일흔 여섯 명 … 합쳐서 아흔 두 명을 추려서 보고하였는 것으로 <도광22년 10월16일>

4.2.7) 爲白有如乎(ㄱ슴잇다온)

爲白有如乎는 'ㄱ슴잇다온(典律)'으로 읽히며, '-하였삼던 것으로'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白, 과거의 有, 과거 지각의 加(-더-), 동명사어미 乎의 결합이다.

片箭一巡三矢一矢得中者試取修報之意發關知委爲白有如乎本州入格舉子爲八十二人 / 아기살을 一巡할 때 세 살에 한 살이 적중한 사람의 試取를 갖추어 보고할 뜻의 關文을 내어 잘 알렸삼던 것으로, 본 州에서 합격 舉子는 여든 두 사람이고 <도광21년 10월16일>

以大靜縣監高性奎定差使員使之裝船候風等節與朝天鎮將洪仁和眼同舉行爲白有如乎五月十五日戌時成貼亥時到付同差使員大靜縣監及該鎮將馳報內 / 대정현감 고성규로 차사원에 정하여, 그로 하여금 배에 짐을 싣고 바람을 기다리는 등의 절차를, 조천진장 홍인화의 입회하에 舉行하게 하였삼던 것으로, 5월 15일 술시에 成貼하고 해시에 도착하여 접수한 차사원 대정현감과 해당 진장의 馳報 안에 <도광21년 5월26일>

柳曉箭一巡五矢騎箭一巡五矢合十矢得中者及…… 試取修報之意發關知委爲白有如乎本州入格舉子爲七十六人…… 合九十二人抄報爲白有等以 / 유엽전 一巡에 다섯 발, 騎箭 一巡에 다섯 발을 합해 열 발을 적중한 사람과…… 시험을 치고 보고하라고 關을 내어 알렸삼던 것으로, 본 주의 入格者 일흔 여섯 명…… 합쳐서 아흔 두 명을 추려서 보고하였는 것으로 <도광22년 10월16일>

4.2.8) 爲白有在果(ㄱ슴잇견과)

爲白有在果는 'ㄱ슴잇견과(儒膏)'로 읽히며, '-하였삼거니와, -하였거니와'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白, 과거의 有, 과거 사실 지속의 선어말어미 在(-견-), 연결어미 果(-와)의 결합이다. 在果는 현대국어의 '-거니와'에 대응한다.

各樣橘果中乳柑洞庭橘數甚零星之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 각 양의 귤과 중에 유감과 동정귤의 수가 심히 보잘 것 없는 연유를 전에 이미 馳啓하였거니와 <도광21년 10월 일>

本島三邑麥農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今年穀麥冬以雪頻之頻春以雨澤之連悶多有踳縮之患是白加尼 / 본도 세 읍의 보리 농사에 대한 실상은 이미 馳啓하였거니와 올해의 보리는 겨울에 눈이 내리고 땅이 어는 것이 빈번하고, 봄에 비가 연속하여 오지 않아서, 여러 번 땅이 꺼져 우므러지는 나쁜 상황이 있더니 <도광23년 5월13일>

4.2.9) 爲白在果(ㄱ습견과)

爲白在果는 'ㄱ습견과(典律)'로 읽히며, '-하삼거니와, -하옵거니와'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白, 과거 사실 지속의 在, 연결어미 果(-과)의 결합이다.

以旌義縣監愼尚欽吏定差員與還泊七隻船同時候風卽爲裝發爲白在果 / 정의 현감 신상홍으로써 다시 차사원을 정하고, 돌아와 정박하고 있는 일곱 척의 배와 더불어 함께 바람을 기다려서, 곧 물건을 실어 보내옵거니와 <도광21년 5월26일>

故左右隣鎮良中一邊傳通一邊馳報亦爲白有等以去留形止着意看望這這飛報事嚴飭題送爲白有果 / 그러므로 좌우의 가까운 진에 한편으로는 전통하고 한편으로는 馳報하라고 하였는 것으로 가고 머무르는 상태를 뜻을 두고 살펴서 신속히 보고할 일이라고 엄히 계획하여 題送하옵거니와 <도광23년 5월 16일>

4.2.10) 爲白只爲(ㄱ습기삼)

爲白只爲는 'ㄱ습기삼(吏機), ㄱ습기암(典律)'으로 읽히며, '-하옵도록 하여, -하도록 하여, -하기 위하여'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白, 연결어미 只爲의 결합이다. 只爲는 동명사어미 只와 동사어간 爲(삼)로 분석할 수 있다.

新備與修補數爻開錄條陳爲白去乎褒嘉之典令該曹考例稟處爲白只爲是良尒詮次善啓向教是事 / 새로 갖추고 보수한 數爻는 왼쪽에 列記하여 조목별로 아뢰옵는 것이니, 포상을 내리는 은전은 해당 曹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서 품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리와 절차를 밟아 善啓하옵실 일 <도광21년 9월12일>

白臣營直爲差定使之傳掌屯馬爲白去乎監牧官職帖下送事令該曹稟處爲白只爲是良尒詮次善啓向教是事 / 신의 監營에서 곧바로 差定하여 그로 하여금 베풀어 屯馬를 장악하게 하옵건, 감목관의 職帖을 내려 보내는 일이므로 해당 曹로 하여금 處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사리와 절차를 밟아서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1월3일>

4.2.11) 爲白乎旆(ㄱ습오며)

爲白乎旆는 'ㄱ습오며(吏大)'로 읽히며, '-하사오며, -하오며'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白,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乎, 竝列의 연결어미

旆(-며)의 결합이다.

米穀限二千石以沿邑所在某樣穀中以精實米劃給之意令廟堂稟處爲白乎旆舊
還段姑爲仍停以舒民力爲白乎旆 / 米穀은 2천석을 한정으로 하여, 沿邑에 있
는 아무런 모양의 곡식 중에 精實米를 劃給할 뜻을 묘당으로 하여금 상주하
여 처리하게 하사오며, 옛날의 환자는 잠시 거둬 연기해 주어서, 백성들이
재력을 펼 수 있게 하사오며 <도광21년 10월21일>

今癸卯式年所封凶咎馬十四 驚駘馬十四合二十四三邑各牧場良中各各抄出依
例封進而右後脚公字格印屯名第次禾毛色成冊開錄爲白乎旆 / 금년 계묘년 式
년에 올린 허물이 있는 말 열 필, 둔한 말 열 필을 합한 스무 필을 세 읍의
각 북장에서 각각 골라서 뽑아내서, 예에 따라 封進하고, 오른쪽 뒷다리에
공자의 낙인을 찍고, 屯名의 차례로 말의 나이와 털의 색깔을 成冊하여 開
錄하오며 <도광23년 5월12일>

4. 2. 12) 爲白乎所(ㄱ늪은바)

爲白乎所는 ‘ㄱ늪은바(儒胥)’로 읽히며, ‘-하사은 바, -하은 바’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결합의 白,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所(바)의 결합이
다.

官鎖門聚點段裏糧來往爲弊不些依近例亦爲停止爲白乎所右項諸條固當覆啓
回下後舉行 / 관의 진문의 聚點하는 것은 음식을 싸고 오고 가는 弊端이 적
지 않아 가까운 예에 따라 또한 停止하였는 바 윗복의 여러 조를 진실로 마
땅히 覆啓(회답을 올림)하여 回下한 뒤 거행한다 <도광21년 10월21일>

4. 2. 13) 爲臥乎味(ㄱ누은맛)

爲臥乎味는 ‘ㄱ누은맛’으로 읽히며, ‘-하누은 뜻(趣旨, 意味), -하는 뜻
[趣旨, 意味]’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현재의 臥(-ㄴ-), 동명사어미
乎, 명사 味(뜻)의 결합이다.

同年十月初九日下直十一月十六日到任爲臥乎味牒呈是白置緣由謹具啓聞 /
같은 해 10월 초 9일에 下直하고 11월 16일 到任하는 뜻이라는 牒呈을 올렸
었기에, 연유로 삼가 갖추어 啓聞함. <도광22년 11월21일>

4. 2. 14) 爲有去乙(ㄱ잇거늘)

爲有去乙은 ‘ㄱ잇거늘(吏便)’로 읽히며, ‘-하엿거늘’의 뜻으로 쓰인다. 동
사어간 爲와 과거의 有, 연결어미 去乙(-거늘)의 결합이다.

木綿襪子一部草鞋一部等物着持東頭西足仰臥致死爲有去乙件作官奴宗福
乙用良次次解脫以醮醋法物飄轉洗身對衆檢驗爲乎矣 / 무명 버선 한 켤레, 다
음 짚신 한 켤레들의 물건을 신고서, 머리는 동쪽으로 행하고 발은 서쪽을
향하고, 하늘을 보고 누워서 죽음에 이르렀거늘 검시의 일을 맡은 관의 사
내종 중복을 써서 차례로 벗기고 醮醋法物로써 몸을 돌리면서 씻겨내고 대
중의 의논으로 檢驗하오되. <도광23년 3월30일>

4. 2. 15) 爲有等以(ㅎ잇ㄷ로)

爲有等以는 'ㅎ잇ㄷ로, ㅎ잇돌로, ㅎ이신돌로(吏便)'로 읽히며, '-하였는
것으로, -하였는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과거의 有,
동명사어미, 의존명사 等(ㄷ), 구격 이의 결합이다.

殺獄罪人朴元益自去月念間得胸腹疾日漸苦痛是如可今日申時量仍爲物故是
如爲有等以取考獄案則 / 살육죄인 박원익이 지난 달 스무 날께 가슴과 배에
병이 들어 날로 점점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이번 달 신시쯤에 인하여 죽었다
고 하였는 것이기에 옥안을 취하여 고찰한 즉 <도광23년 3월30일>

4. 2. 16) 爲有旆(ㅎ잇며)

爲有旆는 'ㅎ잇며, ㅎ이시며(吏便)'로 읽히며, '-하였으며'의 뜻으로 쓰인
다. 동사어간 爲와 과거의 有, 竝列의 연결어미 旆의 결합이다.

啓依允事啓下內辭意奉審濟州牧及各該邑良中申明知委施行爲有旆各祭設行
後依例啓聞 / 啓에 기대어 운허하는 일. 啓下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펴
서 제주목과 각 해당 邑에 사실을 밝히어 잘 알리고 施行하였으며, 각 祭를
設行한 뒤에 前例에 따라 啓聞함. <도광22년 3월3일>

啓下數是置啓下內辭意奉審濟州牧及各邑良中知委施行爲有旆 / 啓下하셨는
데, 啓下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펴서 제주목과 각 邑에 잘 알려서 施行
하였으며 <도광22년 10월3일>

4. 2. 17) 爲有如可(ㅎ잇다가)

爲有如可是 'ㅎ잇다가(吏便)'로 읽히며, '-하였다가'의 뜻으로 쓰인다. 동
사어간 爲와 과거의 有, 동작의 그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如可(-다가)의 결
합이다.

今癸卯年正月初三日政文奉安爲有如可待其祭日依例設行後自本牧直爲啓聞
宜當向事關是白乎等以同本州三邑祭享各於其日依禮文設行爲白遣 / 이번 제

묘년 정월 초3일 승정원에 문서를 奉安하였다가 그 祭日을 기다려 例에 따라 設行한 뒤 本 牧으로부터 곧바로 啓聞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이 있사 온 것으로 위의 本 州 세 읍의 祭享은 각기 그 날에 禮文에 따라 設行하옵고 <도광23년 3월7일>

4. 2. 18) 爲有矣(ㄱ잇디)

爲有矣는 'ㄱ잇디, ㅎ이시디'로 읽히며, '-하였으되'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과거의 有, 연결어미 矣(-디)의 결합이다.

各祭設行依例啓聞而粘移收聚上送以爲憑考之地爲有矣到付日時回移宜當向 事關是置有亦 / 各 祭의 設行을 전례에 따라 하라는 啓聞과 粘移를 모아서 上送하고 근거로 삼아 고찰하였으되 접수한 날 시간에 回移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이었습니다 <도광22년 10월3일>

4. 2. 19) 爲有置(ㄱ잇두)

爲有置는 'ㄱ잇두(吏便), ㅎ이시두'로 읽히며, '-하였어도, -하였는데'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과거의 有, 연결어미 置(-아/어도)의 결합이다.

今月申時量仍爲物故爲有置相考慮之教味白齊 / 이번 달 신시쯤에 인하여 죽었어도, 相考하여 처리하실 일이라고 아웁니다. <도광23년 3월30일>

4. 2. 20) 爲乎矣(ㄱ오티)

爲乎矣는 'ㄱ오티, ㅎ오티(吏便)'로 읽히며, '-하오되, -하되, -하였으되'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爲와 연결어미 乎矣(-오티)의 결합이다. 어미 乎矣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뒷 말의 사실이 앞 말의 사실에 구속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傳敎教是置傳敎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舉行形止依例啓聞宜當向事關是白置有亦 / 傳敎를 내려 두셨는데, 傳敎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서 시행하였으되, 거행한 形止는 전례에 따라 啓聞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關文이 있사옵기에 <도광21년 9월10일>

木綿襪子一部次草鞋一部等物着持東頭西足仰臥致死爲有去乙件作官奴宗福乙用良次次解脫以醞醋法物顯轉洗身對衆檢驗爲乎矣 / 무명 버선 한 켤레, 다음 짚신 한 켤레들의 물건을 신고서,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발은 서쪽을 향하고, 하늘을 보고 누워서 죽음에 이르렀거늘 검시의 일울 맡은 관의 사내중 종복을 써서 차례로 벗기고 醞醋法物로써 몸을 돌리면서 씻겨내고 대

증의 의논으로 檢驗하였으되. <도광23년 3월30일>

4.3) 白-(슌-)

白은 훈독자로, '슌'으로 읽힌다. 동사어간 '슌-'의 표기로, 아랫사람이 윗 사람에게 '아뢰다, 사뢰다'의 뜻으로 쓰인다.

4.3.1) 白等(슌등)

白等은 '슌등(吏文), '슌든(吏便)으로 읽히며, '아뢰는 것은, 사뢰는 것은'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白과 의존명사 '드'와 주제의 특수조사 '-니'의 통합형인 등의 결합이다. 동명사어미가 생략표기되었다.

推考次癸卯三月二十七日鎖匠奴宗福年二十九白等殺獄罪人致死委折從實現
告推問敎是臥乎在亦 / 推問하여 고찰하던 차 계묘년 3월 27일 옥문지기인
사내종 종복(29살)이가 아뢰는 것은, 살육죄인 박원익이가 致死한 곡절을
사실대로 아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라. <도광23년 3월30일>

4.3.2) 白齊(슌제)

白齊는 '슌저(典律), 슌제(儒齊)'로 읽히며, '아웁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白과 종결어미 齊의 결합이다. 齊는 가벼운 명령이나 請願의 뜻을 가진다.

舉體肉色瘦黃合面舉體六色亦爲瘦黃因病致死的實敎味白齊爲等如各人等招
辭是置有亦 / "모든 몸의 색깔이 파리한 누런 색이고, 땅에 닿아 있는 모든
몸의 색깔도 또한 파리한 누런 색이어서,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고 하신 뜻을 아웁니다"라고 한 것들대로, 각 사람들이 진술하여
있는 것이라. <도광23년 3월30일>

4.4) 向-(안-)

向은 훈독자로, '아안, 안'으로 읽힌다. 死語인 동사어간 '*앗-, *앗-'의 표기로, '앞으로 할-, 앞으로 행할-'의 뜻으로 쓰인다. 대개 동명사어미를 내포하여 뒤에 오는 명사(事)를 꾸미거나 동명사어미를 내포한 '敎, 敎是' 앞에 사용된다.

4.4.1) 向敎是事(아이산일)

向敎是事는 '아이산일(吏便)'로 읽히며, '-하시을 일, -하시은 일'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向과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敎是, 동명사어미(-근), 명사 事(일)의 결합이다. 대개 동사어간 向은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敎, 敎是에 선행하거나, 생략된 표시 앞에 사용된다. 문맥상황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의 의미로 사용된다.

拯屍人居姓名教物成册修上于備邊司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詮次
善啓向敎是事 / 건져 올린 시체의 거주지와 성명, 教物을 成册하고 손질하
여 비변사에 올린 연유와 아울러서 馳啓하옵는 일이기에 사리와 절차에 따
라 善啓하옵실 일. <도광23년 5월22일>

4. 4. 2) 向事(안일)

向事는 '안일(語錄), 아안일(典律)'로 읽히며, '-한 일, -할 일'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向과 동명사어미(-근), 명사 事의 결합이다. 문맥상황에 따라 과거 또는 미래의 뜻을 갖는다.

待其祭日依例設行後自本牧直爲馳啓宜當向事關是白乎等以同本州三邑祭享
各於其日依禮文設行爲白遣 / 그 祭日을 기다렸다가 전례에 따라 設行한 뒤
本 牧에서 곧바로 馳啓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관문이온 것으로, 위의 본 주
세 읍의 祭享은 각각 그 날에 禮文에 따라 設行하옵고 <도광21년 10월3일>

到卽傳給于該縣監形止自本牧卽爲狀聞宜當向事關是白置有亦 / 도착하는
즉시 해당 현감에게 전하여 주고 形止는 本 牧에서부터 즉시 狀聞함이 마땅
한 일이라는 관문이 있는 것이기에 <도광23년 4월6일>

4. 5) 敎是-(이시-)

敎是는 '이시' 혹은 '이산'으로 읽히며, '하시-, 이시-'의 뜻으로 쓰인다. 주로 임금의 분부나 한 일, 할 일을 말할 때 사용한다. 문맥상황에 따라 敎是는 동명사어미가 통합된 어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4. 5. 1) 敎是臥乎在亦(이시누운건이여)

敎是臥乎在亦은 '이시누운건이여(典律)'로 읽히며, '-하시는 것이라, -하시
는 것이기에, -하시는 것이므로'의 뜻으로 쓰인다. 존경의 동사어간 敎是和
현재의 臥(-누-), 동명사어미 乎, 과거 사실의 지속을 나타내는 在, 연결어미
亦의 결합이다. 통합구성상 -臥乎在-의 결합이 특이하다.

推考次癸卯三月二十七日鎖匠奴宗福年二十九白等殺獄罪人致死委折從實現

告推問教是臥乎在亦 / 推問하여 고찰하던 차 계묘년 3월 27일 鎭匠인 사내
중 종복(29살)이가 아뢰기를, 살육죄인 박원익이가 致死한 곡절을 사실대로
아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기에 <도광23년 3월30일>

同日監獄鄉所姜安世年二十五刑吏李春伯年二十五獄直鄭亥孫年三十一罪人
朴元益致死委折從實現告亦推問教是臥乎在亦 / 같은 날 감옥의 향소 강안세
(25살), 형리 이춘백(25살), 옥지기 정해손(31살)이가 죄인 박원익이 죽음
에 이른 곡절을 사실대로 아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기에 <도광23년 3월30
일>

4. 5. 2) 教是置(이시두)

教是置는 '이시두'로 읽히며, '-하셨어도, -하셔도, -하셨기에, -하셨으
로'의 뜻으로 쓰인다. 존경법의 동사어간 教是와 연결어미 置의 결합이다. 置
는 본래 동사어간 '두-'에서 문법화한 것이다.

上日依爲之事傳教教是置傳教內事意奉審施行向事是白置有亦 / 임금이 말
씀하시길, '한대로 할 일(허락한다)'이라는 傳教를 하셨기에, 傳教 안의 事
意를 잘 받들어 시행할 일이었삼기에 <도광22년 6월25일>

啓下教是置啓下內辭意奉審濟州牧及該邑良中知委施行爲旆 / 啓下하셨기
에, 啓下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펴서 제주목과 해당 읍에 잘 알려서 施
行하며 <도광21년 10월3일>

4. 5. 3) 教是置有亦(이시두이신이여)

教是置有亦是 '이시두이신이여'로 읽히며, '-하시어 두었습니다, -하시어
두었기에'의 뜻으로 쓰인다. 존경법의 동사어간 教是와 과거 지각의 선어말어
미 置有, 연결어미 亦의 결합이다. 置有를 복합동사어간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어간의 문법화한 어미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予至意期有實効事有旨教是置有亦有旨內辭意奉審施行向事關是白置有亦 /
'나의 지극한 뜻을 實効가 있게 할 일'이라는 有旨를 내리어 있으신 것이기
에, 有旨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施行할 일이라는 關文이 있사은 것이라
<도광22년 2월10일>

各率乃職以紆宵旰之憂焉事有旨教是置有亦有旨內辭意奉審施行向事關是白
置有亦 / 각기 거느리고 맡아 다스려서 나의 부지런함에 대한 근심을 덜게
하라는 일로 有旨를 내리시는 것이기에, 유지 안의 辭意를 잘 받들어 살피
고 施行할 일이라는 關文이 있사은 것이라 <도광23년 1월28일>

4. 6) 教-(이시-)

敎는 '이시' 또는 '이신, 이산'으로 읽히며, 존경법의 敎是와 같은 기능을 가진 동사어간이다. 是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4. 6. 1) 敎(이신)

敎는 '이시, 이신'으로 읽히며, '-하신, -하셨는'의 뜻으로 쓰인다. 敎는 존경법의 동사어간으로 쓰였으며, 문맥에 따라 동명사어미를 보충하여 해석해야 한다.

謹啓爲相考事節到付備邊司關據本道觀察使關內節啓下敎司啓辭諸道春操稟啓
今已齊到矣 / 삼가 아뢰어 相考하는 일. 이번에 접수한 비변사의 關文에 의거하여 본도 관찰사의 關文 안에, 이번에 啓下하신 비변사의 啓辭는 여러도의 春操(봄철에 행하는 군사조련)의 啓는 이번에 이미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도광23년 3월20일>

4. 6. 2) 敎味(이신맛)

敎味는 '이신맛, 이산맛(吏大)'으로 읽히며, '-하신 뜻[趣旨, 意味], -이신 뜻[趣旨, 意味]'의 뜻으로 쓰인다. 존경법의 동사어간 敎와 동명사어미, 명사味(뜻)의 결합이다. 명사 味는 대개 임금의 명령이나 분부한 내용·趣旨를 뜻한다.

五月十二日巳時穩泊於本州朝天浦是如乎相考慮之敎味白齊招辭是白置有亦
/ 5월 12일 사시에 본주의 조천포에 편안히 정박하였으니, 相考하여 처리하실 뜻을 아뢴다는 招辭가 있사온 것이라 <도광22년 5월13일>

舉體肉色瘦黃合面舉體六色亦爲瘦黃因病致死的實敎味白齊爲等如各人等招辭是置有亦 / "모든 몸의 색깔이 파리한 누런색이고, 땅에 닿아 있는 모든 몸의 색깔도 또한 파리한 누런색이어서,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고 하신 뜻을 아웁니다"라고 한 것들대로 각 사람들이 진술이 있는 것이라. <도광23년 3월30일>

4. 7) 上使-(우에브리-)

上使는 '우에브리, 우에브리'로 읽히며, '위에 올린다,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글월이나 첩정을 올린다'의 뜻으로 쓰인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또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문서 등을 보낸다는 뜻을 가진 上과 '-하게 하다, 시키다. 브리다'는 뜻을 가진 使가 복합된 형태이다. 명사인 上과 동사인 使를

분석할 수 있으나, 복합형태로 다룬다.

4. 7. 1) 上使爲臥乎味(우에브리츰누온맛)

上使爲臥乎味는 '우에브리츰누온맛'으로 읽히며,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 또는 하급관원이 상급관원에게 牒문 따위를 올리는 뜻(趣旨)'의 뜻이다. 복합동사어간 上使와 동사화접사 爲, 현재의 臥, 동명사어미 乎, 명사 味の 결합이다.

上項物故罪人朴元益屍身依例檢驗後官上天字號屍帳良中兩件印出一件粘連上使爲臥乎味牒呈是白置有亦本州殺獄罪人朴元益物故的實是白乎等以緣由謹其啓 / 위에 말한 물고죄인 박원익의 屍身은 예에 따라 檢驗한 뒤, 관에 아뢰어 天字號의 檢屍장부에서 두 건을 인출하고 한 건은 粘連하여 글월을 올리는 뜻이라는 牒문을 하였사온 것이기에, 본주의 살육죄인인 박원익이 죽은 것이 확실한 것으로, 연유를 삼가 갖추어 啓를 올립니다. <도광23년 3월 30일>

4. 8) 用(씨)

用은 '씨'로 읽히며, 동사어간 '씨-'의 표기이다. 대개 부동사형어미 良이 결합된 用良, 또는 동사어간 使가 결합된 用使-의 형태로 쓰인다.

4. 8. 1) 用良(씨야)

用良은 '씨야, 씨'로 읽히며, '-을 써서, -을 이용[사용]하여, -을 부리어'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用과 부동사어미 良의 결합이다. 用良을 대개 대격 乙을 지배하며, 이 경우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木綿襪子一部次草鞋一部等物着持東頭西足仰臥致死爲有去乙作官奴宗福乙用良次次解脫以醋醃法物翻轉洗身對衆檢驗爲乎矣 / 무명 비선 한 켤레, 다음 짚신 한 켤레 등의 물건을 신고서,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발은 서쪽을 향하고, 하늘을 보고 누워서 죽음에 이르렀거늘 검사의 일을 맡은 관의 사내종 종복을 써서 차례로 벗기고 醋醃法物로써 몸을 돌리면서 씻겨내고 대중의 의논으로 檢驗하오되. <도광23년 3월 30일>

4. 9) 仍(지출-)

仍은 '지출'로 읽히며, 동사어간 '지출-'의 표기이다. '더하다, 말미암다'의 뜻으로 쓰인다. 仍于형태가 대표적이다.

4.9.1) 仍于(지즈루)

仍于是 '지즈루(古壽), 지즈로(儒舊)'로 읽히며, '-으로 말미암아, -으로 인하여,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仍(지츄-)과 부동사어미 于가 결합한 것이다. 대개 대격 '乙'을 지배하는데, 이때 '乙'은 현대국어의 '원인'을 의미하는 具格 '-으로'에 대응한다.

翌日寅時量到巖巖郡所安島後洋猝 遇躡風怒濤不能制船 瞬息之間船已傾覆
乙仍于矣等二名…… 等三十三名段投上從船轉泊於康津 縣新智島而僅爲生活
/ 다음 날 인시 쫄에 영암군 소안도 뒷바다에 이르러, 갑자기 사나운 바람과 성난 파도를 만나서,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배는 이미 기울어 앞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두 사람…… 등 설흔 세명은 혹 딸린 배에 뛰어 올라 전전하다가, 강진현 신지도에 정박하여 겨우 살아났고 <도광21년 7월9일>

朝官年八十土庶年九十 老人每於歲末例爲修啓乙仍于本島三邑良中一一查抄是白乎則朝官年八十老人段無乎是白遺 / 朝官(여든 살), 土庶(아흔 살), 老人을 매 歲末例에 따라 修啓함으로 말미암아 본도 세 읍에 일일이 조사하여 뽑은 즉 조관(여든 살)과 老人은 없는 것이옵고 <도광22년 12월10일>

4.10) 無-(없-)

無는 '없'으로 읽히며, 동사어간 '없-'의 표기이다. 독음상 또는 문맥해석상 삼입모음을 첨가하여야 한다.

4.10.1) 無乎(업스온)

無乎는 '업스온, 어오론(吏文)'으로 읽히며, '없는(것, 바), 없사온(것, 바)'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無(없-)와 동명사어미 乎의 결합이다.

至於土庶年九十老人旌義縣段無乎而本州爲十五人靜縣爲一人是白乎等以老人等姓名年歲開錄于後爲白遺 / 土庶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아흔이 된 노인이 정의현에는 없는 것이고, 본주에는 열 다섯 사람, 대정현에는 한 사람이 온 것으로, 노인들의 姓名과 나이를 뒤에 開錄하옵고 <도광22년 12월10일>

4.10.2) 無乎是白遺(업스온이습고)

無乎是白遺은 '업스온이습고, 어오론이습고'로 읽히며, '없는 것이옵고'의 뜻이다. 동사어간 無와 동명사어미 乎, 계사 是,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연결어미 遺의 결합이다.

朝官年八十土庶年九十老人每於歲末例爲修啓乙仍于本島三邑良中一一查抄是白乎則朝官年八十老人段無乎是白遣 / 朝官(여든 살), 土庶(아흔 살), 老人을 매 歲末例에 따라 修啓함으로 말미암아 본도 세 읍에 일일이 조사하여 뽑은 즉 조관(여든 살)과 老人은 없는 것이옵고 <도광22년 12월10일>

4. 11) 除-(덜-)

除는 '덜'로 읽히며, 동사어간 '덜-'의 표기이다. '덜다, 빼다, 제외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4. 11. 1) 除良(덜어)

除良은 '덜어'로 읽히며, '(-만) 빼서, 덜어, 제외하여 / -뿐만 아니라'의 뜻으로 쓰인다. 동사어간 除와 부동사형어미 良(아/어)의 결합이다. 대개 한 정을 의미하는 叱分(썩)을 지배하여, '-만 빼고, -만 덜어내고, -만 제외하여 / -뿐만 아니라' 정도로 해석한다.

夫何今月望後凄風冷雨連日頻作尚今不霽毋論早晚各穀頗有傷損分叱除良再播穉芽因除草之不得趁時姑無苗長之望是白如乎 / 대저 어떤 일로 이번 달 보름 뒤에 처량한 바람과 차가운 비가 여러 날 계속 되어서 도리어 지금 낱씨가 개지 않아 이른 것이든 늦은 것이든 논할 것 없이 각 곡식은 모두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뿌린 어린 싹도 김을 매 주지 못하여 진작에 잠시 잘 자랄 가망이 없는 데 <도광21년 6월29일>

5. 기 타

여기서는 語尾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범어미로 쓰이는 如와 亦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5. 1) 亦(-라)

亦은 '여, 이여'로 읽히며, '-이여, -하라(고)'의 뜻으로 쓰인다. 남이 한 말을 인용하여 전함을 나타낼 때 쓰이지만,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분부하거나 알린 내용을 인용하는 종결어미이다. 주로 爲(ᄃᆞ)와 敎是(이시-), 使內(브리-) 따위의 동사 앞에 나타나지만 가끔 계사 是(이-)의 앞에도 쓰인다.

同日監獄鄉所姜安世年二十五刑吏李春伯年二十五獄直鄭亥孫年三十一罪人

朴元益致死委折從實現告亦推問數是臥乎在亦 / 같은 날 감옥의 향소 강안세 (25살), 형리 이춘백 (25살), 옥지기 정해손 (31살)이 죄인 박원익이 죽음에 이른 곡절을 사실대로 아뢰라고 推問하시는 것이다. <도광23년 3월30일>

5. 1. 1) 亦是白有跡(여이슌이시며)

亦是白有跡는 '여이슌이시며'로 읽히며, '-하라고 하셨으며, -하라 하였사오며'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亦과 계사 是, 겸양의 白, 과거의 有, 연결어미 跡의 결합이다.

發送原籍官之由擧論於狀聞中是違同漂民發送是去乎相考之地亦是白有跡 / 원적관에게 보낸 연유를 보고한 狀聞 안에 거론하였고, 위의 표류민을 보내 건, 相考하라고 하였사오며 <도광22년 5월13일>

5. 1. 2) 亦爲白有置(여ᄃᆞᆫ슌이신두)

亦爲白有置는 '여ᄃᆞᆫ슌이신두, 여ᄃᆞᆫ슌잇두'로 읽히며, '-하라고 하셨어도, -하라고 하셨기에, -하라고 하셨는데'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亦과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有, 연결어미 置(-아/어도)의 결합이다.

故問情別單及船中所載文書與卜物件記卽爲上送亦爲白有置今此漂人既稱官員則與其下流漂到者似有差等 / 그러므로 問情한 別單과 배 안에 실고 있던 문서와 짐물문기를 즉시 올려 보내라 하였사와도, 금번 표류한 사람이 이미 말한 관원은 곧 그 하층민과 더불어 표류한 사람으로 差等이 있는 것 같아서 <동광23년 5월 16일>

5. 1. 3) 亦爲白有所(여ᄃᆞᆫ슌이신바)

亦爲白有所는 '여ᄃᆞᆫ슌이신바'로 읽히며, '-하라고 하셨는 바, -하라고 하셨는 것으로'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亦과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有, 동명사어미, 의존명사 所(바)의 결합이다.

朴元哲等十三名因爲 沒金仲得朴實良尹近錄等三名僅得生活是如馳告亦爲白有所 / 박원철등 열 세명은 물에 빠져 죽음으로 인해서 김종득, 박귀람, 윤근록등 세 명이 겨우 삶을 얻어 살았다고 馳報하라 하셨는 바 <도광22년 9월10일>

5. 1. 4) 亦爲白有跡(여ᄃᆞᆫ슌이시며)

亦爲白有跡는 '여ᄃᆞᆫ슌이시며'로 읽히며, '-하라고 하셨으며, -하라고 하였

사오며'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亦과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有, 연결어미 旆의 결합이다.

渠等三人生還是如故着實供饋別定船隻限同將校入送亦爲白有旆 / 저들 세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므로 착실하게 음식을 주고 따로 배를 정하여 임회한 장교가 入送하라 하셨으며 <도광23년 3월7일>

貴牧居民九名漂入異國今始生還故給糧資成草料發送原籍官之由舉論於狀聞中是遣同漂民發送是去乎相考之地亦爲白有旆 / 貴牧에 사는 백성 9명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여 들어갔다가 이제야 비로소 살아 돌아왔으므로 糧資를 주고 草料狀을 작성하여 原籍官에 發送하는 연유를 狀聞 중에 舉論하였고 위의 표류한 백성을 發送하니 相考하라 하였으며 <도광22년 11월9일>

5. 1. 5) 亦爲白乎等以(여호습은도로)

亦爲白乎等以는 '여호습은도로, 여호습은들로'로 읽히며, '-하라고 하옵신 것[바, 줄]으로, -하라고 하옵신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亦과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의도법어미 乎, 동명사어미, 의존명사 等(의), 구격 以의 결합이다.

船制則前尖後廣插一帆竹人形則夜深月迷之致不得看望亦爲白乎等以把守等節益加戒嚴殺無疏忽之意另飭題送是白遣 / 선제는 앞이 뾰족하고 뒤는 넓으며, 하나의 돛대를 꽂았고, 사람의 형상은 밤이 깊고 달이 혼미한 지경에 이르러 살펴 보지 못하게 하라 하였기 때문에 把守 등의 절차를 더욱 더 계획하여 다만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뜻을 더욱 신칙하여 題送하였으니 <도광 23년 5월16일>

5. 1. 6) 亦爲白有等以(여호습잇도로)

亦爲白有等以는 '여호습잇도로, 여호습잇들로'로 읽히며, '-하라고 하였사옵는 것[바, 줄]으로, -하라고 하옵셨는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亦과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有, 동명사어미, 의존명사 等(의), 구격 以의 결합이다.

故左右隣鎮良中一邊傳通一邊馳報亦爲白有等以去留形止着意看望這這飛報事嚴飭題送爲白有果 / 그러므로 좌우의 가까운 진에 한편으로는 전통하고 한편으로는 馳報하라고 하였는 것으로 가고 머무르는 상태를 뜻할 듯이 살펴서 신속히 보고할 일이라고 엄히 계획하여 題送하였지니와 <도광23년 5월 16일>

5.2) 是如(이라)

是如是는 '이다(吏大), 이라'로 읽히며, '-이라고, -이라는'의 뜻으로 쓰인다. 남의 한 말을 인용할 때 쓰이는데, 대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아뢴 내용을 인용할 때 쓰인다. '是如'를 지배하는 동사는 是(이-), 爲(ㅎ-), 敎時-(이시-), 白(슌-) 등이다.

朴元哲等十三名因爲 沒金仲得朴實良尹近錄等三名僅得生活是如馳告亦爲白有所 / 박원철등 열세 명은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김중득, 박귀량, 윤근록등 세 명이 겨우 삶을 얻어 살았습니다고 馳報하라 하였사온 바 <도광22년 9월10일>

5.2.1) 是如是遣(이다이고)

是如是遣는 '이다이고'로 읽히며, '-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옵고'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계사 是, 연결어미 遣의 결합이다.

故以書答之日朝鮮國全羅道康鎮縣人興販次出海逢風漂流是如是遣 / 그러므로 글로써 답하여 말하기를, 조선국 전라도 강진현 사람으로 물건을 팔려고 출발하였던 것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바람을 만나 漂流하였다고 하고<도광22년 5월13일>

5.2.2) 是如是白加尼(이다이슌더니)

是如是白加尼는 '이다이슌더니'로 읽히며, '-이라고 하옵더니, -이라고 하더니'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계사 是, 겸양의 白, 연결어미 加尼의 결합이다.

始得便風貢馬分載九隻船次第點放是如是白加尼翌日卯時量該縣監更爲馳報內 / 비로소 순풍을 만나서 貢馬를 아홉 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서 차례로 點放하였다 하옵더니 다음 날 묘시 쯤에 해당 현감이 다시 馳報한 내용 안에 <도광21년 5월26일>

5.2.3) 是如是白遣(이다이슌고)

是如是白遣는 '이다이슌고'로 읽히며, '-이라고 하옵고, -이라고 하고'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계사 是, 겸양의 白, 연결어미 遣의 결합이다.

觀其火勢不可跳入雖或跳入已燒無餘是乎旆本縣戶籍及其他文簿並在隔房亦

爲燒燼其時光景魂夢猶驚此外無他可達之辭是如是白遣 / 그 불의 위세를 보고 달아나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비록 달아나서 들어갔더라도 이미 타버려 남은 것이 없으며, 본현의 호적과 기다의 문서는 아울러서 떨어진 방에 있었는데, 또한 다 타버렸고, 그때 정신을 잃어 오직 놀라웠습니다. 이외에 달리 아뭏 말미 없다고 하옵고 <도광22년 10월22일>

5. 2. 4) 是如是白乎等以(이다이슌은도로)

是如是白乎等以는 '이다이슌은도로, 이다이슌은돌로'로 읽히며, '-이라고 하옵는 것으로, -이라고 하옵는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계사 是, 겸양의 白,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等(도), 구격 以의 결합이다.

今年開花之後又被屢朔亢旱繼帝自枯類結無幾是如是白乎等以州城近處臣躬自看審 / 올해 꽃이 핀 뒤에 또한 여러 달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입어 꽃과 열매가 스스로 枯死하여 맺은 알맹이가 거의 없다고 하였는 것이기 때문에 <도광22년 8월24일>

5. 2. 5) 是如是白乎旆(이다이슌오며)

是如是白乎旆는 '이다이슌오며'로 읽히며, '-이라고 하삽오며, -이라고 한 것이오며'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계사 是, 겸양의 白, 의도법어미 乎, 연결어미 旆의 결합이다.

本月二十三日乘船候風今月初三日夜穩泊于本州禾北浦是如是白乎旆 /本月 23일에 배를 타고 순풍을 기다렸다가 이번 달 초 3일 밤에 본주의 화북포에 편안하게 정박하였다고 하오며 <도광23년 3월7일>

5. 2. 6) 是如是白乎所(이다이슌은바)

是如是白乎所는 '이다이슌은바'로 읽히며, '-이라고 하사은 바, -이라고 하였는 바'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계사 是, 겸양의 白,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所의 결합이다.

同行之姜金兩人已自梨津生擲逃走不知去處是如是白乎所此漢等漂流如無別般事情則萬里生還宜有汲汲入來之意 / 동행한 姜씨와 김씨 두 사람은 이미 梨津에서부터 공연히 旻을 내어 도망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하사은 바, 이능들의 표류가 만일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만리를 살아 돌아와서 들어오려고 힘쓸 것이며 <도광22년 10월9일>

群山合字船所載一千石幸即穩泊於本州朝天浦是如是白乎所 / 群山の 合字
船에 실은 천 석의 곡식은 다행히 곧 본 주의 조천포에 편안히 정박하였다
고 하사온 바 <도광22년 3월24일>

5. 2. 7) 是如是白乎所以(이다이슌은바로)

是如是白乎所는 '이다이슌은바로'로 읽히며, '-이라고 하사온 바로, -이라
고 한 것으로'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계사 是, 겸양의 白, 동
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所(바), 구격 以의 결합이다.

海路絶遠船體極小萬死一生之命不可再蹈必死之地本船棄置願以貴國船還送
本國是如是白乎所以本船雖小既無破傷則 / 바닷길은 몹시 멀고 배는 극히 작
아서 살아나기가 어려워, 다시 땅을 밟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본
선을 버려 두고 귀국의 배로 본국으로 돌려 보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
본선이 비록 적으나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아서 <도광23년 5월 16일>

5. 2. 8) 是如爲白如乎(이다ㅎ슌다온)

是如爲白如乎는 '이다ㅎ슌다온'으로 읽히며, '-이라고 하옵기에, -이라고
하옵더니, -이라고 하였사오니'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동사어
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如, 연결어미 乎의 결합이다.

船主韓明煥等八名終無形跡是如爲白如乎莫重人物與貢馬之至於漂流 / 선주
한명환등 여덟 명이 끝내 形跡이 없었다고 하옵기에, 막중한 인물과 貢馬가
漂流하는 지경에 이르러 <도광21년 5월26일>

5. 2. 9) 是如爲白臥乎所(이다ㅎ슌누은바)

是如爲白臥乎所는 '이다ㅎ슌누은바'로 읽히며, '-이라고 하삼누은 바, -이
라고 하사온 바'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현재의 臥,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所의 결합이다.

掛衣之壁已爲延燒不得救出是如乎此外更無所供之事是如爲白臥乎所 / 옷이
걸려 있는 벽은 이미 계속 타버려 구출을 못하였으니 이외에 다시 바치는
일이 없다고 하누은 바 <도광22년 10월22일>

5. 2. 10) 是如爲白有等以(이다ㅎ슌이신드로)

是如爲白有等以는 '이다ㅎ슌이신드로, 이다ㅎ슌이신들로'로 읽히며, '-이라
고 하였사온 것으로, -이라고 하였사온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인

용법어미 是如와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有, 의존명사 等, 구격 以의 결합이다.

同兩隻船因風西向其往如矢俄頃之間杳無形影是如爲白有等以軍兵把守撤罷爲白遣 / 위의 두 척의 배가 바람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마치 화살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形影이 묘연하게 사라졌다고 하였는 것이기 때문에 軍兵의 把守는 곧 철폐하도록 하였고! <도광21년 3월13일>

5.2.11) 是如爲白有旆(이다ㅎ슌이시며)

是如爲白有旆는 '이다ㅎ슌이시며'로 읽히며, '-이라고 하였사오며'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有, 연결어미 旆의 결합이다.

仍卽舉旋掛帆轉向西大洋稍稍遠去是如爲白有旆鱗次沿邊是白在遮歸鎮助防將李春烈馳報內 / 인하여 곧 닻을 거두고 돛을 달아 방향을 서대양으로 돌려서 짐차로 멀리 사라져 갔다고 하였으며 비늘처럼 연변에 늘어선 차귀진 조방장 이춘열의 馳報한 내용에 <도광21년 3월13일>

5.2.12) 是如爲白有所(이다ㅎ슌이신바)

是如爲白有所는 '이다ㅎ슌이신바'로 읽히며, '-이라고 하였사온 바'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동사어간 爲, 겸양의 白, 과거의 有, 의존명사 所의 결합이다.

本月初七日日本鎮浦放發是如可伊日薄暮猝遇東南大風仍爲漂流是如爲白有所 / 이번 달 초 칠일에 본 鎮의 포구에서 배를 출발하였다가 그날 해질녘에 갑자기 동남쪽에서 부는 큰 바람을 만나서, 표류하였다고 하였사온 바 <도광21년 10월10일>

屍體段漂掛沿邊畢皆拯得是如爲白有所數多人物之一時泔沒聞甚驚慘依例以常平廳皮穀各一石恤典題給於拯得屍親等處使之埋葬是白乎旆 / 시체는 물에 떠서 沿邊에 걸쳐지고, 대개는 건져 올렸다고 하였는 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듣고 매우 놀랍고 애처로워 상평청의 걸보리 각 한 섬으로써 恤典을 건져올린 屍親들에게 題辭를 제기어 주고, 그것으로 시체를 묻도록 하였으며 <도광23년 5월22일>

5.2.13) 是如爲白有置(이다ㅎ슌이신두)

是如爲白有置는 '이다ㅎ슌이신두, 이다ㅎ슌이시두'로 읽히며, '-이라고 하

였어도, '-이라고 하였사오므로'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범어미 是如와 동사어간 爲, 검양의 白, 과거의 有, 연결어미 置(아/어도)의 결합이다.

僅爲生活或續付船材出沒大洋之際幸賴過去船之拯救亦爲卸下該島是乎乙遣私商高明河……等八名段未能措手泅沒於險濤之中進上及狀啓並爲沈失是如爲白有置 / 겨우 살아서 혹 개미같이 船材에 붙어서 큰바다에 떠돌았다 가라 앉았다 할 때 다행히 지나가는 배의 구조에 도움을 받았고, 또한 해당 섬에 내렸사옴고 개인 상인인 고명하…… 등 여덟 명은 미처 손쓸 나위도 없이 험한 파도 속에 빠져 죽었고 進上品과 狀啓도 아울러 물에 빠져 잃어버렸다 고 하였어도 <도광21년 7월9일>

李男伊等九名多日鉤拯終未搜得是如爲白有置三名之僅得圖生雖甚奇幸而十三名之一時泅沒誠極慘憺是白乎等以 / 이남이들 아홉 명은 여러 날 갈고리로 선저 올렸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어도, 세 명을 겨우 구해서 삶을 도모한 것이 비록 매우 다행이나 열 세명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진실로 매우 비참하고 가련한 것이기 때문에 <도광22년 9월17일>

5. 2. 14) 是如爲白乎等以(이다하숄은도로)

是如爲白乎等以는 '이다하숄은도로, 이다하숄은도로'로 읽히며, '-이라고 하사온 것으로, -이라고 하사온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범어미 是如와 동사어간 爲, 검양의 白,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等(ᄃᆞ), 구격 의의 결합이다.

五六月兩次大風如干結課舉皆剝落是如爲白乎等以州城近處則臣躬自看審是白遣 / 오뉴월 두 달에 걸친 큰바람으로 약간 맺은 열매의 대부분이 떨어졌다고 하온 것으로써 주성 근처는 몸 신이 몸소 스스로 잘 살렸고 <도광21년 8월26일>

5. 2. 15) 是如爲臥乎所(이다하누온바)

是如爲臥乎所는 '이다하누온바'로 읽히며, '-이라고 하누온 바'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범어미 是如와 동사어간 爲, 현재의 臥, 동명사어미 乎, 의존명사 所의 결합이다.

以爲矣身本以虛脆之質當此隆寒腹冷之疾發作呻吟聞月萬無起動之望是如爲臥乎所莫重邊戍之地 / 이몸은 본래 허약한 체질로써, 이러한 겨울철에 배가 차가워지는 질병이 발작하여, 한 달을 신음하다가 起動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바 邊方을 지키는 것이 莫重하여 <도광21년 11월6일>

5. 2. 16) 是如爲有等以(이다ᄃᆞᆫ잇도로)

是如爲有等以는 '이다ᄃᆞᆫ잇도로, 이다ᄃᆞᆫ잇도로'로 읽히며, '-이라고 하였는 것으로, -이라고 하였는 것이기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 是如와 동사어간 爲, 과거의 有, 의존명사 等(ᄃᆞ), 구격 以의 결합이다.

殺獸罪人朴元益自去月念間得胸腹疾日漸苦痛是如可今日申時量仍爲物故是如爲有等以取考獄案則 / 살육죄인 박원익이 지난 달 스무날께 가슴과 배에 병이 들어 날로 점점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이번 달 신시 쯤에 인하여 죽었다고 하였는 것이기에 옥안을 취하여 고찰한 즉 <도광23년 3월30일>

5. 2. 17) 是如乙仍于(이다올지르루)

是如乙仍于是 '이다올지르루'로 읽히며, '-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의 뜻으로 쓰인다. 인용법어미 是如와 대격 乙, 동사어간 仍, 부동사어미 于의 결합이다.

彼等以書問矣等所居地方及漂流事狀是乎所曾聞濟州人之或漂異國也每諱濟州二字是如乙仍于答以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 / 저들은 글로써 우리들의 사는 지방과 표류한 상황을 묻는 바 일찍이 제주 사람이 혹시 다른 나라에 표류했을 때 제주라는 두 글자를 피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조선국 전라도 해남현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도광22년 11월9일>

Ⅲ. 마 무 리

지금까지 癡窩 이원조 목사가 제주목사로 재직시 상급기관 또는 임금에게 올린 칙정 등의 등사기록인 <탐라계록>에 나타나는 이두와 이두문을 고찰하고 해독하였다. 이 자료는 근대국어시기의 이두문으로, 상당부분이 한문투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순수한 이두문이라기보다 한문화된 이두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역사학계에서는 중·근대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소위 庶民生活史부분들을 복원하려는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이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이들의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근대국어시기의 이두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쓴 것이다.

다음에 위에서 다룬 것을 품사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결론을 대신한다.

본 자료에 나타나는 단일명사는 右(이피), 事(일), 節(디위), 同(오원), 前

(전), 身(몸), 此(이) 등이 쓰였다.

대명사는 矣(이), 矣身(이몸), 矣等(이들), 矣徒等(의내등), 我等(저등), 汝(너), 汝等(너등), 汝矣身(너의몸), 汝矣等(너의등), 彼等(저등), 其(저), 此等(이등) 등이 쓰였다.

복합명사는 上項/右項(운목), 還上(환자), 還捧上(환받자), 向前(아전), 的實(적실), 結卜(먹짐), 召史(조이), 外上(외자), 各別(각별), 卜物(짐물), 磨鍊(마련), 緣由(연유), 件記(불기) 등이 쓰였다.

의존명사는 條(조), 次(츠), 叱分(촌), 所(바), 喻(디), 味(맛) 등이 쓰였다.

명사류 접사는 式(식), 等(등) 徒(내) 등이 쓰였다.

수량명사는 件(건), 石(섬), 斗(말), 升(되), 刀(되?), 合(홉), 匹(필), 葉(접), 張(장), 尾(마리), 丹(단), 件(벌), 貼(첩), 兩/錢/分(냥/전/푼), 葉(잎), 箇(개), 柄(병), 隻(책), 歲(살), 把(발), 禾(수), 部(부), 浮(부), 戶(호), 名(명), 人(사람), 里(리), 尺/寸(자/치), 坐(좌), 面(면), 斤(근), 株(그루) 등이 쓰였다.

고유명사표기에는 烏賊魚(오징어), 涼臺(갯양태), 驕馬(유매물), 加羅馬(가라물), 古羅馬(고라물), 赤多馬(적대물), 盃令(버령이), 晚早峰(느지리오름) 등이 쓰였다.

助詞는 段(싼은), 段置(싼두), 如(다히), 乙(을), 以(으로), 矣(의), 矣(이), 良中(아히), 亦中(여히) 등이 쓰였다.

副詞는 并以並以(아오로), 次次(츠츠로), 次第(츠데로), 這這(글글), 爲先(위선), 不得(모딜), 追乎(조초) 등이 쓰였다.

동사어간으로는 계사 是(이), 爲(ㄹ), 敎(이시), 敎是(이시), 白(슌), 向(안), 上使(우에브리), 用(쓰), 仍(지출), 無(없), 除(덜) 등이 쓰였다.

선어말어미로는 겸양의 白(슌)과 乎乙(을), 과거의 有(잇/이시), 현재의 臥(느), 존경의 敎(이시)와 敎是(이시), 과거 사실 지속의 在(겨), 미래의 去(겨), 과거지각의 如(더), 과거의 加(더), 의도법 乎(오), 置有(두잇/과거) 등이 나타난다.

어말어미로는 除(-며), 遣(-고), 置(두), 良置(아/어도), 良尔(-아금), 加尼(-더니), 如可(-다가), 如中(-다히), 乎(은), 亦(여/이여), 果(-과), 乃(-나), 矣(-티), 乎則(-느), 只爲(-기삼) (이상 연결어미), 齊(-제), 亦(-여/이여), 如(-다) (이상 종결어미), 在(-니), 隱(-니), 乎(-니/근) (이상 동명사형어미) 등이 쓰였다.

참 고 문 헌

- 고정의 (1991), "대명틀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 대학원.
- 남풍현 (1992), "고문서의 이두 해독-유경공신녹권을 중심으로-", <정신문화 연구>1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서종학 (1990), "이두의 문법형태표기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오창명 (1987), "비변사등록의 이두 연구", 단국대 대학원.
- 오창명 (1993-1), "제주계록의 이두와 이두문에 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2, 제주도사연구회.
- 오창명 (1993-2), "<민문충공주의>의 이두 연구", <어문학논총>(근재양순필박사화갑기념논총), 학문사.
- 이승재 (1989), "고려시대의 이두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한상인 (1993), "대명틀직해 이두의 어학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